식품업계 안심캠페인 열풍

metro
메트로 2014년 4월 1일 화요일 제2948호 www.metroseoul.co.kr

류현진 전국구 스타 부상

북 해상사격에 한·미 합동 상륙훈련 북한이 지난달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하며 수백 발의 포탄 중 일부가 NLL 남쪽 우리 측 해상으로 떨어져 군이 즉각 대응 사격을 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경북 포항 일대에서는 한·미 해병대의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이 진행됐다.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안으로 돌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연합뉴스

'부모 얼굴만으로 미아찾기 앱' 우승

MS, 2014 이매진컵 한국대표 선발전

IT 기술이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20대 대학생들이 만든 이 소프트웨어를 보면 IT 기술은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지난 27~28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부산시와 함께 부산 동서대 캠퍼스에서 '2014 이매진컵 한국 대표 선발전'을 열었다.

이 대회에서 4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임팩트' 팀은 '원케이스'라는 획기적인 앱을 선보여 우승했다.

이 앱은 사진 없이도 부모의 얼굴만으로 오래전에 잃어버린 어린이를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얼굴 비교·분석 툴이다.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부모와 아이를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80%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만 한 해 평균 4만 명의 미아가 발생하고 국가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나면 수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급 효과가 엄청난 휴머니즘적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다.

실종된 아이의 사진이 있다면 이 앱을 거쳐 미아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95%에 달한다는 게 MS 측의 설명이다. 20%의 확률로 이어 찾기에 실패한 경우에도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시 표본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이 앱을 기획했던 단계에서 이미 대기업들이 소문을 듣고 기술 매입을 제안해왔다는 점이다. 앱 특성상 조금만 응용하면 다양한 곳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앱이 개발된 배경에는 박애정신이 있다. 팀원들은 시리아 내전으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최근 개최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 현장을 TV로 지켜보면서 아쉬웠던 기억 등을 떠올린 뒤 본격적인 앱 개발에 나섰다.

'우리가 한번 해결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고민하던 중 심스(SIMS) 게임에서 부모 캐릭터와 자녀 캐릭터가 닮았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가족을 만드는 심스게임은 부모의 얼굴을 설정하면 피부톤, 홍채 색깔 등 부모 외형을 닮은 아기가 태어난다. 여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몇 번의 실험을 거친 결과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는 걸 확인한 뒤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결과물은 한국미아방지협회 등에서 당장 상용화를 해도 문제없다고 했을 정도로 우수성을 갖췄다.

임팩트 팀원 전은솜(21)씨는 "아프리카 오지는 물론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의 IT 청년들이 지구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정전기 원리를 이용한 퍼즐 게임 '언더배드'를 개발한 '보몬'과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들며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 앱 '옷 헤어'를 선보인 '퀸 더 클라우드'가 공동 우승해 7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이매진컵 최종전 우승을 노린다.

'IT 월드컵'으로 통하는 MS의 이매진컵은 2003년 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190개국 176만 명의 학생들이 지혜를 겨룬 축제로 국내 입상자의 경우 삼성전자, SK플래닛, 카카오 등 주요 IT기업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고 있다.

/부산=이정운기자 jw@metroseoul.co.kr

한강 생물서식지 복원 여의도5배의 숲 조성

서울시가 녹지와 생태, 수질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여의도공원의 5배에 달하는 숲을 조성한다.

한국영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지난달 31일 '2030 한강 자연성 회복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한강에서 보기 어려운 큰고니, 황복, 물총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고 물놀이가 가능한 수준으로 한강의 수질을 끌어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독일 라인강변의 울창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여의도, 잠원, 잠실, 반포, 난지 한강둔치 등 13곳에 여의도공원 크기 5배인 104만7000㎡ 규모의 숲을 만든다.

아울러 자연적으로 토사 퇴적이 가능한 탄천-중랑천, 여의도샛강을 생태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촌 권역과 반포천 주변을 천변 습지로 만들어 한강 개발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한다.

또 서쪽의 강서(개화산~덕양산), 동쪽의 광나루(아차-용마산~정광산), 남북을 잇는 이촌(용산~관악산)에 나무를 심어 생태 축을 최대한 연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강 내 인공 호안을 자연하안 또는 자연형 호안으로 탈바꿈시킨다. 자연하안은 콘크리트 옹벽 등을 걷어내고 수변에 갈대, 물억새, 버드나무 등을 심어 자연이 스스로 퇴적 작용을 거치면서 호안을 형성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유속이 완만한 이촌~동작대교, 잠실철교~광진대교 등 4개 지역이 복원 대상이다.

/김민준기자 mjkim@

연평도행 배에서 내리는 주민들 지난달 31일 북한의 해상 사격 훈련으로 서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연평도행 배편이 갑자기 취소돼 승객들이 여객선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NLL 넘어온 포탄…즉각 대응 사격

북, 해상훈련에 연평도 등 주민 대피령

북한이 지난달 31일 낮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시작했다. 북한은 이날 총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인근 해상으로 발사했고 이 가운데 100여 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져 우리 군이 즉각 대응 사격을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의 사격 훈련이 끝난 직후 "북한군의 해상 사격 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탄은 NLL 이남으로 최대 3㎞ 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북한군 포탄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지자 K-9 자주포로 300여 발의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차 사격은 오늘 오전 우리 군에 통보한 7개 구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지만 2차 사격부터는 백령도 동북쪽 해상(2구역)에서만 실시됐다"며 "NLL 이남에 떨어진 북한군 포탄은 모두 2구역으로 발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놓고 있다. 배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만 100여 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의 130㎜, 사거리 12㎞의 76.2㎜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의 152㎜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돼 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북측에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은 서해 사격을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호전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군의 NLL 해상 사격 훈련에 대비해 우리 군은 육·해·공군 합동 지원 세력은 비상 대기시켰다. 육군과 해병대는 화력 대비 태세를 유지했고, 공군 전투기와 해군 함정도 초계 활동을 강화했다. 특히 F-15K 전투기는 NLL 이남 해상에서 초계 비행을 했다.

군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령도와 연평도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고, 주민들과 학생들은 연평고등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실시간 상황 대응에 주력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8시께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우리 해군 2함대사령부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한다고 통보했고 낮 12시15분께 실제 사격 훈련에 들어갔다.

/김민준기자 m.kim@metroseoul.co.kr

미지근한 갤S5 출시 반응

기자 수첩
장윤희
<경제산업부 기자>

"갤럭시S5 신규 가입 유일하게 SK텔레콤."

SK텔레콤이 지난 주말부터 갤럭시S5 광고를 시작했다. 현재 KT와 LG유플러스가 순차적 영업정지 중이니 갤럭시S5 신규 가입 개통은 SK텔레콤에서만 가능하다는 마케팅이다.

SK텔레콤은 4월 5일 영업정지 시작을 앞두고 갤럭시S5 판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초 갤럭시S5는 4월 11일 전 세계 동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SK텔레콤은 영업정지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7일 조기 출시를 감행했다.

안타깝게도 갤럭시S5의 시장 반응은 전작 시리즈만큼 뜨겁지 않다. SK텔레콤은 갤럭시S5 출시 당일 신규 가입자가 평소보다 하락했다. 조기 물량 부족 원인도 있지만 보조금 없는 단말기 구입이 낯선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가장 크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출고가를 전작보다 3만원가량 낮춘 86만6800원으로 책정했지만 프로모션을 감안하더라도 예전만큼 후한 가격으로 사기 힘들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갤럭시S5 단말기 가격이 전 세계 출시 국가 중 가장 높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부대 액세서리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명했지만 석연치 않다.

갤럭시S5 출시 반응을 계기로 불필요한 단말기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 이통 3사가 보조금 명목으로 단말기를 싸게 팔되 비싼 요금제를 권하던 관행도 사라져야 한다. 갤럭시S5의 미지근한 시장 분위기가 통신 업계의 전화위복이 되길 기대한다.

감사원 구룡마을 개발 심의 착수

감사원이 지난 28일 서울시에 구룡마을 개발 감사와 관련해 첫 질의서를 보냈다. 서울시가 감사원 질의서에 대해 답변하고 나면 관련 내용은 감사원 감사위원회로 넘어가 심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31일 "우선 한 가지 내용에 대한 질문서가 도착했고 답변 기한은 1주일"이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질문서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의 수용·사용 방식의 개발 발표로 본격화됐으나 2012년 6월 서울시가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 방식을 일부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자 강남구가 반대하면서 개발이 지연됐다. /이경순기자

뉴스&뉴스

수수료 낮춘 알뜰여권 발급한다

● 외교부는 사증(비자)란을 기존의 반인 24면으로 줄이고 발급 수수료를 낮춘 '알뜰여권'을 1일부터 발급한다. 이에 따라 여권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 여권 사증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국민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 수수료는 유효 기간이 5년인 것은 4만2000원, 10년인 것은 5만원이다.

서울·베이징시 대기오염 공동대응

● 서울시가 중국 베이징시와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 질 관련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3월 중국을 방문해 왕안순 베이징시장과 면담하고 합의문에 서명한다. 합의문에는 대기오염이 동북아시아 공동의 문제로 도시 간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이 담긴다.

정책 발표하는 정몽준 예비후보 새누리당 서울시장 정몽준 예비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논의 여야정 협의체 가동

첫날부터 팽팽한 기싸움

기초연금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재가동했다.

협의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유재중,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과 김현숙 민홍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정책위의장과 김성주 김용익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르신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저희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차등 지급이지만 90%는 똑같이 20만원을 받는 안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은 야당의 우려를 고려해 진전된 안을 모색한다 했고, 그런 안이 나오리라 생각했는데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소득 수준과 연계 검토할 용의가 있었는데 장관이 아무 안을 안 가져와서 저희가 생각하는 안을 제시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jh@

이산가족 10명 중 3명 "불편하다"

지난 2월 19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북한의 가족을 만난 남측 이산가족 10명 중 3명은 불면증·허탈감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1일 대한적십자사가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 439명 전원을 대상으로 상봉 후 건강 및 심리 상태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30명(응답률 52%) 중 62명(27%)이 상봉 후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답했다.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로는 '북한에 있는 가족 걱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사람이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움으로 인한 불안증'을 호소한 사람도 24명으로 나타났다.

/조현정기자

뒷돈받은 세무공무원 무더기 기소

조사과정 편의 미끼 뇌물 나눠먹기 드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31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서울국세청 홍모(56) 전 팀장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서울지방 2010년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해운사로부터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자신이 1000만원을 챙긴 뒤 다른 팀원들에게 3000만원을 나눠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증권사와 의류 수출업체, 식품회사 등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팀원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54)씨 등 4명 역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다수의 기업들로부터 각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나눠 가진 혐의다.

이씨 등은 또한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김모(54)씨가 유명 입시 전문 교육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3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세무조사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입시 전문 교육업체 A사의 윤모(53) 경영관리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성진기자 hjcho@metroseoul.co.kr

제52회 진해 군항제 개막을 6일 앞둔 지난 31일 오후 벚꽃이 만개한 진해 경화역에 들어오는 무궁화호 열차를 상춘객들이 사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고온 벚꽃축제 앞당긴다

여의도 윤중로 5일 개막

이상 고온 현상으로 꽃이 너무 일찍 개화해 서울 각 구청들도 벚꽃 축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25일 제주 서귀포에서 처음 핀 벚꽃은 나흘 후인 29일 서울까지 올라와 꽃망울을 터트렸다. 서울에서 3월에 벚꽃이 핀 건 1922년 기상청이 벚꽃 개화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예년 4월 중순 벚꽃 축제를 열어온 서울 구청들은 일정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여의도 벚꽃축제를 주관하는 영등포구는 이달 13~20일 예정됐던 일정을 3~13일로 1주일 이상 앞당겼다. 윤중로의 벚꽃이 이미 만개해 5일 개막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파구도 '2014 석촌호수 벚꽃축제'를 원래 예정된 이달 11~13일에서 4~6일로 앞당겼다.

연산 벚꽃으로 유명한 서대문구는 16~20일 열기로 한 '2014 연산 벚꽃음악회'를 4~8일로 변경했다.

서울지역 벚꽃 축제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된다. /유선준기자

생명을 구하는 심폐소생술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4 서울 시민 심폐소생술(CPR)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심폐소생술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교통비·식대보조도 육아휴직급여 포함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된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이 육아휴직급여 산정 항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교통·식대보조비, 정근수당을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수당들을 포함해달라는 강씨의 청구를 거부하고 통상임금을 잘못 산정한 고용지청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4월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고용지청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급된 급여에 교통·식대보조비, 효도휴가비, 정근수당분이 빠져있자 소송을 제기했다. /윤다혜기자

성희롱 서울대 성악과 교수 징계

서울대는 성악과 박모(47) 교수와 성희롱과 개인 교습 의혹과 관련해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한 결과 박 교수의 행동이 대학 교원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중징계 의견으로 박 교수를 징계위에 회부함에 따라 박 교수는 1일부터 곧바로 직위 해제돼 강의 등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는 별도 독립 기구로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에 열린다.

박 교수는 지난 2011~2012년 자신이 개인 교습했던 A(22·여)씨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 2월부터 교내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 측은 인권센터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박 교수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가슴을 열고 사진을 찍어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A씨 외에도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대는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윤리 문제를 현재 논의 중인 '성악 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의제에 포함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다혜기자 yunda@metroseoul.co.kr

결혼이민 한국어 알아야 비자 발급

법무부가 건전한 국제 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결혼이민(F-6)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을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표나 한국어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받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외국어로도 부부 사이에 의사 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당사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 심사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 자녀가 출생하는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도 심사가 면제된다. 결혼이민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 요건도 심사 대상이다.

법무부가 정한 2인 가구 소득 요건은 연간 1479만4804원이다.

/조현정기자 기사

허준박물관 일대 테마거리로

서울시 강서구는 가양동 허준박물관 일대를 허준테마거리로 새롭게 조성한다. 폭 4.8m, 연장 300m의 양천로 55길 일대(홈플러스~허준박물관)가 A·B·C 구간으로 나눠 조성된다. 5월 중 준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새단장

서울시 성동구가 마장축산물시장 주변 도로를 새로 단장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정비 구간은 청계천로, 축산물시장 북문 현대아파트 일대와 축산시장 내부의 일부 도로를 포함한다. 공사는 오는 5~6월 휴일에 진행된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동남아 지역의 홍역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여행객을 통한 국내 홍역 발생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 /연합뉴스

동남아여행객 홍역환자 주의보

영유아 중심 바이러스 전파사례 늘어

동남아 지역의 홍역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 여행객을 통한 국내 홍역 발생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에 동남아 여행객에 의한 홍역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2월부터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국외 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전파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올해 들어 지난 28일까지 국내의 홍역 확진 환자는 모두 56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환자 107명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가운데 48명은 해외에서 감염된 후 국내에서 발생했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로 인한 사례였다. 나머지 8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국내 홍역 환자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올 들어 필리핀·베트남·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 홍역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며 "특히 필리핀은 연초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43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해 지난해 총 환자 2400명을 이미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홍역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 이상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며 "생후 12~15개월, 만 4~6세에 각각 한 번씩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올해 국내 환자 가운데 61%는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23%는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대부분 미접종자가 감염됐다.

/한영훨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만우절…"장난 전화 처벌받아요"

1일 '만우절'에 무심코 112에 장난 전화를 걸었다가는 벌금·구류·과료처분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거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3조의 '거짓 신고'로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혹은 과료를 받게 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 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로 일선 경찰서장을 비롯해 경찰 31명을 출동하게 한 신고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즉심에 부쳐져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접수는 2011년 2478건에서 2012년 1898건, 지난해 1860건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윤다혜기자 yuh@

온라인서 짝퉁 판매한 티몬 기소

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베낀 짝퉁 물건을 다량 판매한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이 결국 사법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티켓몬스터 법인과 회사 상품기획 담당 직원 한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2012년 10~12월 6차례에 걸쳐 티몬 홈페이지에서 어섬을 부츠 브랜드인 어그의 위조품 9137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가는 약 13억원에 이른다.

해당 물품은 짝퉁으로 의심된다는 소비자들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는 등 불만이 접수됐지만 한씨는 사전에 약속한 감정 의뢰 조치 없이 광고를 통해 물건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회사의 관리 책임을 물어 상표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티몬 법인을 한씨와 함께 기소하는 한편 판매액 13억원 중 티몬 측 수익금 약 1억70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윤다혜기자 yuh@

양파값 폭락 항의시위 전국 양파 생산 농민들이 지난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양파값 폭락에 항의하며 양파 최저 가격을 35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 뜻풀이 이성愛로 환원

'사랑'에 관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가 '성(性) 중립적'인 쪽으로 바뀌었다가 항의민원이 빗발치자 1년여 만에 원래 정의로 되돌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31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사랑'의 4번째 정의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런 일'로, 사랑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이성 간 벌어지는 행위로 좁혔다.

국어원은 앞서 2012년 대학생 5명이 "성 소수자 차별을 만든다"며 사랑의 정의를 바꾸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용해 '사랑' '연애' '애정' '연인' '애인' 등 5개 단어의 뜻풀이를 변경했다.

'사랑'은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연애'는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애정'은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등으로 뜻풀이가 바뀌었다.

/조현정기자 h@

metro Russia

В Москве открыл… танцевальный се…

metro HongKong

注藥牛奶 流入廣州

危險 廣東佛山一間無牌水牛奶養殖場，被投訴衛生環境惡劣及出售未經檢測的牛奶。養殖場為了增加水牛的產奶量，還替牛隻注射

검역 안거친 우유 시중에 유통

최근 중국 광둥성 포산시의 무허가 목장에서 검사나 검역을 거치지 않은 우유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장 측은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젖소에 자궁수축제까지 투여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이 목장에서는 오후에 우유 생산량이 적으면 젖소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사가 일부 젖소에 자궁수축제를 투여해 우유 생산을 촉진하고, 젖소가 병에 걸리면 소염 치유 효과를 얻기 위해 페니실린을 투여했다.

metro France

La bière, nouvel attra…

Nord-Pas-de-Calais

C'est un tourisme d'un nouveau genre. Sur le modèle des «routes des vins», l'agence de tourisme L'Echappée Bière s'est spécialisée depuis fin 2013 dans les visites autour de ce breuvage partie prenante du patrimoine du Nord-Pas-de-Calais. Après le tour «Le Vieux-Lille et la bière», un circuit «Bière et mémoire» a été créé dans le cadre du centenaire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Nous nous sommes rendu compte que le patrimoine brassicole n'était pas assez représenté dans la …

맥주를 관광아이템으로 선정

맥주를 관광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에서 맥주를 관광 아이템으로 선정했다. 월자스 지방의 대표적 여행 상품인 '와인가도'에서 착안된 이번 아이템은 2013년 말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구체적 상품으로는 '릴과 맥주', '맥주와 추억' 등이 기획됐다. 관광 상품 기획자 니콜라 레시유는 "전통적 맥주 양조사들을 고려했다. 와인과는 달리 맥주 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행 일정에 유명 관광지와 양조장을 함께 넣었다"고 말했다.

metro Brazil

계속되는 가뭄으로 식료품값 고공행진

토마토 한달새 28%↑

계속되는 가뭄으로 브라질의 식탁 물가가 위협받고 있다. 3월에만 식료품의 가격이 평균 1.11%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브라질 내 식품비의 12개월 누계 상승률은 6.39%에 이르게 됐다.

가장 높은 가격 인상을 보인 식재료에는 다시 한번 토마토가 뽑혔다. 지난 계약 악몽에 이어 토마토는 또다시 3월에만 28.5%의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다른 청과물 가격도 마찬가지로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으며, 특히 양상추와 오렌지가 각각 16.49%와 12%로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한 경제학자는 "감자와 양파 가격도 가뭄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며 "두 작물은 장기 저장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현 상황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나 가뭄이 끝나는 대로 위와 같은 작물은 곧 일반 가격 선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브라질 국민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쇠고기 가격은 지난 2월 0.95% 상승한 데 이어 3월에도 2.5% 올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쇠고기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극심한 가뭄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목초 확보와 콩과 옥수수 가격 상승도 그 원인이 됐다.

커피 또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5.44%에서 28.34%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 더욱이 커피 업계는 올해에만 무려 35%의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설상가상으로 가뭄이 4월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브라질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정리=손유완 인턴기자

모스크바 공원은 지금 댄스 열풍

따뜻해진 봄 맞아 주말이면 곳곳서 파티

최근 부쩍 따뜻해진 봄 날씨 덕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댄스 열풍이 거세다. 고리키 공원을 비롯한 모스크바 시내 각 공원의 댄스 광장들은 예년보다 일찍 문을 열었다.

고리키 공원 관계자 스베틀라나 막심첸코는 "주말이면 북고 댄스인 여술을 주기 위해 수십 명이 댄스 광장에 모인다"며 "공원 내 여러 구역에서 댄스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원하는 춤을 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 중앙에서는 허슬 댄스를 추고, 다리 쪽 광장에서는 왈츠와 같은 고전 댄스를 즐기며 공원 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신나는 토르곤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고 덧붙였다.

춤을 추기 위해 댄스 광장으로 나오는 시민들은 대부분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편한 복장을 하고 있다. 바쁜 일상 중 잠깐이라도 춤을 출 때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정장을 입고 멋을 부린다.

한 시민은 "이곳에서는 살사와 탱고 등 다양한 라틴 댄스를 취향에 맞게 골라 출 수 있어 좋다"며 "거리 댄서들이 펼치는 댄스 배틀도 볼거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시민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춤을 추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면서 "낮부터 시작된 댄스 타임이 새벽까지 이어질 때도 있다"며 웃었다.

모스크바 예카테리니스크 공원 관리자 올가는 "대체로 4월 말부터 5월 초에 댄스 광장이 마련되지만 올해는 일찍 찾아온 봄 덕분에 댄스 광장이 일찍 문을 열었다"며 "연습을 위해 춤을 추는 시민들도 있고, 젊은 커플들은 데이트 코스로 댄스 광장을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매년 공원에서 춤을 추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며 "좋아하는 음악을 가져와 틀어달라고 부탁하는 어르신들도 있을 정도"라고 했다.

팔리 공원 관계자 라리사 예르모로파는 "우리 공원에서는 댄스 강습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라틴 댄스와 왈츠 수업이 특히 인기"라며 시민들에게 무료 수업을 추천했다.

한편 봄맞이 댄스 광장은 모스크바 이외에도 페테르부르크 네바 강변과 얀드레예프스키 다리 등 러시아 각지에 마련돼 있다.

페테르부르크시 관계자는 "우리 시에 댄스 광장이 마련된 지 5년이 됐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페테르부르크의 멋진 풍경과 아름다운 음악을 배경으로 댄스를 즐긴다"고 말했다.

/다리야 부리도노바 기자 · 정리=조한진 기자

63 SPRING PACKAGE
대한민국 봄을 대표하는 벚꽃축제와 63의 봄 신상품을 소개합니다

market index <31일>

코스피 1985.61 (+4.61)
코스닥 541.58 (-2.52)
금리 2.87
환율 1062.50 (-6.50)

석·박사·국토순례… 취업 도움 안되는 스펙

석·박사 학위, 국토 순례 경험, 회계사 자격증 등이 취업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1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175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생들의 스펙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81.1%가 '불필요한 스펙이 있다'고 답했다. 44.4%(복수응답)의 기업은 불필요한 스펙으로 석·박사 학위를 꼽았으며 국토 순례 등 극기 경험(40.8%), 회계사 등 고급 자격증(32.4%), 한자 자격증(31.7%), 아르바이트 경험(31%), 창업 등 사회 경험(30.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스펙이 취업에 불필요한 이유로는 88%(복수 응답)의 기업이 '직무와 무관해서'라고 답했다. 특히 '불필요한 스펙'을 갖춘 지원자의 19%는 실제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목표가 불명확한 것 같아서'(59.3%, 복수 응답)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제철 맞은 조개 이마트는 지난 31일 제철을 맞은 전남 여수, 경남 진해산 키조개 및 가리비, 왕꼬막을 선보였다. 키조개는 마리당 1680원, 가리비는 100g당 980원, 왕꼬막은 100g당 980원으로 지난해와 시세는 비슷한 수준이다. /연합뉴스

車보험료 최대 15% 오른다

●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이달부터 적게는 4%에서 많게는 15%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지난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4월 11일 책임 개시일부터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1% 올리고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16일부터 4% 인상한다.

LIG손보는 7일부터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를 15% 인상하고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는 5월 1일 책임 개시일부터 3% 올린다. 동부화재는 11일부터 영업용 10%, 5월 1일부터 업무용 3%를 인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는 지난 16일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4% 올렸으며 이날부터 업무용 보험료도 3%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백아란기자

포인트 기부하면 세액공제

● 다음달 예금·적금이나 카드 포인트를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우리은행·우리카드와 나눔금융 상품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르면 일상 금융거래를 통해 기부 등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 상품이 4월부터 출시된다. 입출금통장이나 적금의 이자, 카드 포인트의 1%를 기부하면 해당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조현정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회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552-2100
독자센터	(02)721-9885

2002년 5월 31일 등록 (서울특별시 가00254)

삼성SDI, 제일모직 흡수 합병

삼성전자의 '매출 10조' 계열사로… 그룹 후계구도 완성단계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한다. 이에 따라 삼성SDI는 매출 10조원 규모의 회사로 재탄생하는 반면 지난 1954년 설립된 제일모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특히 삼성SDI를 계열사로 둔 삼성전자는 완제품과 부품, 소재에 이르는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이 확고해질 전망이다.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커져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인수함에 따라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삼성그룹 내 매출 5위권 내에 들어가게 된다.

삼성그룹 계열사별로 지난해 매출 규모를 보면 삼성전자 228조원, 삼성물산 28조원, 삼성생명 매출 17조원을 기록했다. 이어 삼성화재가 매출 15조원, 삼성중공업 14조원으로 합병 예정인 삼성SDI를 앞서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삼성SDI의 지분을 20.38% 보유한 상황이어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 체계를 갖추게 되고,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로 결론 내려질 전망이다.

제일모직의 지분을 보면 삼성그룹 내 계열사인 삼성카드가 7.28%, 삼성자산운용이 4%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합병으로 지분을 늘이는 효과로 나타나게 됐다.

특히 이번 지배 구조 확립으로 삼성그룹 내 후계 구도가 더욱 명확하게 이뤄지게 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전자·금융 분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호텔·건설·중화학 분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패션·미디어 분야 이서현 사장 등으로 정리 작업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삼성SDI는 이번 합병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2차 전지 및 디스플레이 사업과 제일모직이 보유한 소재 사업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 재료 및 케미컬 등 다양한 소재부터 부품·시스템까지 사업을 확대해 전자·자동차·전력 등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룹 모태 제일모직 역사 속으로

이번 합병은 삼성SDI가 제일모직을 흡수하는 방식이어서 삼성SDI가 존속 회사가 되는 반면, 삼성그룹의 모태인 제일모직은 소멸 회사가 된다.

삼성은 제일모직 상호의 상징성을 감안해 패션 사업을 인수한 삼성에버랜드가 제일 모직의 상호를 승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곤기자 kmgon@metroseoul.co.kr

삼성전자 S프러포즈 굿스위칭 삼성전자는 이달 말까지 이사·결혼 등으로 생활의 변화를 겪는 고객에게 프리미엄 가전과 1등급 절전 가전제품을 합리적인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삼성전자 S 프러포즈 굿스위칭 프로젝트'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구치소 1년' 최태원 SK회장 보수 301억

주요그룹 등기임원 연봉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 전문경영인 최고액 '67억'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고 계열사 등기임원직에서 물러난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해 4개 계열사 보수로 301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는 삼성출신 CEO들이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각 그룹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최태원 SK 회장은 자신이 등기임원으로 있던 계열사를 비롯해 4곳에서 301억6020만원의 보수를 챙겼다.

우선 SK이노베이션에서는 급여 24억원, 성과금 88억원, 복리후생비 500만원 등 총 112억4500만원을 받았다. 또 SK C&C에서 80억120만원, SK하이닉스에서 22억원, (주)SK에서 67억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1월 구속수감된 최 회장은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구치소에서 보내며 경영활동을 할 수 없었다.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지급받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권오현 부회장이 67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았다.

이어 IM(IT·모바일) 부문장인 신종균 사장이 62억1300만원, CE(소비자가전) 부문장인 윤부근 사장이 50억8900만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이상훈 경영지원실 사장이 37억3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김민준기자

24개월 연속 경상흑자 행진

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45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24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2월 국제수지(잠정)' 자료에 따르면 2월 경상수지 흑자는 45억2000만 달러로 전달(32억9000만 달러)보다 늘었다. 이는 중계무역 마진을 서비스수지에서 상품수지로 재분류하는 등 변경된 새 국제 기준에 의한 집계다.

상품수지 흑자는 2월 43억7000만 달러에서 3월 54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수출은 480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7.3% 늘었지만, 수입은 426억 달러로 1.3%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2월 19억1000만 달러에서 10억6000만 달러로 축소됐다. 금융계정은 유출 규모가 2월 46억8000만 달러에서 69억2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직접 투자가 전월 5억3000만 달러 유입 초에서 21억6000만 달러 유출 초로 전환됐다. /김민지기자

은행장 현장경영 바람

기업 권선주·우리 이순우·농협 김주하 등 집무실 밖 행보 눈길

은행권 수장들이 집무실 책상이 아닌 '현장'으로 업무 환경을 바꾸고 있다.

직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거래 기업들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경영에 전력하고 있다.

지난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한민국 1호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왕성한 현장 경영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권 행장은 지난달 서부지역본부와 강서, 제주지역본부 소재 중소기업을 시작으로 이달에는 경서지역본부와 경수지역본부, 경동지역본부 소재 기업을 방문했다. 은행의 현장 경영이란 곧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게 권 행장의 생각이다. 권 행장은 전국 18개의 지역본부와 영업점 등을 돌면서 현장 경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지난달부터 중소 중견기업을 현장 방문하는 '희망 징검다리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장의 중소기업 현장 방문 투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수도권 지역의 관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오는 4월 3일까지 충청지역의 과학벨트, 부산 서부지역와 산업단지, 대구·경북지역의 구미공단과 호남지역의 남해안벨트 등 전국 5개 권역에 위치한 100여 개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투어에는 중소기업청 지방청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동행해 민관 합동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하 농협은행장도 최근 현장 경영을 재개했다. 지난달 영업부를 방문해 직접 펀드를 가입하고 마케팅 직원들을 격려했다.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외국계 비료회사 '카길'을 방문했다. 김 행장은 "지난 2004~2005년 남대문기업금융지점장 때 첫 인연을 맺은 회사여서 꼭 방문하려고 했으나 미뤄온 곳"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카길의 주 거래 은행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수장들의 이 같은 행보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조직 분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은지기자 ankd@metroseoul.co.kr

"영국 기업에 투자하세요" 제류 그레이 영국투자무역청 그레이트 위크 프로그램 매니저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주한 영국대사관저에서 영국의 유망한 기업을 한국에 소개하는 '그레이트 위크(Great Week)'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그레이트 위크는 영국 정부가 주도하는 마케팅 활동인 그레이트 브리튼 캠페인 활동의 하나로, 영국투자무역청이 진행한다. /연합뉴스

증권 받은 날부터 15일내 청약철회

이달부터 바뀌는 보험제도

보험업계는 전통적으로 4월 1일 새로운 상품과 함께 제도나 약관을 개선하는 관례가 있다. 과거 4월부터 시작하는 회계년도를 결산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회계년도가 1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기준은 변했지만 보험 관련 제도는 여전히 4월부터 새롭게 변경되고 있다.

◆생명보험 및 장기·상해 표준약관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사항 위주로 약관 구성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전문 용어를 읽기 쉽게 고쳤다. 또한 불합리한 약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사업방법서

계약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수술보험 등 개별 보험 상품의 약관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로만 한정해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약관에 최신 수술 기법을 포함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약 철회 제도

기존에는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청약일 이후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자동 갱신 안내장 표준화

계약자의 자동 갱신 내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 전후 보험료 수준뿐 아니라 변동 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도록 하는 자동 갱신 안내장 표준안을 마련했다.

◆보험료 할인·면제 안내 의무화

보험 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해당 상품에 대해 신청 가능한 보험료 할인 및 납입 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암보험 상품 보장 추가

약관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 명칭을 '암직접치료입원비'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보험 상품 가입 시 항암방사선·약물 보장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 구성이 바뀐다.

◆조건부 인수제도 개선

과거 병력 등으로 표준적인 조건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특정 신체 부위 또는 질병을 일정 기간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장하지 않는 신체 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은 명확히 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또 감기, 장염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 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는 알기 쉽게 변경된다.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 제도

보험 종류별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지연 이자를 가장 높은 보험계약 대출 이율로 통일하기로 했다.

/박청한기자 pjw@m...

금융가 사람들 ● HMC투자증권 김정호 연구원

美 금리인상, 신흥국에 기회

'사면초가'에 처한 신흥국 금융시장의 난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향후 신흥 취약 5개국이 재닛 옐런 미 연준의장의 조기 금리인상 시사 발언 이후 어떤 행보를 보일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취약한 5개국으로 브라질과 남아공,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등을 꼽을 수 있다.

HMC투자증권 투자전략팀 김정호(사진) 연구원은 지난 27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재닛 옐런 연준의장의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은 그간 우려로만 회자되던 금리 인상 주 '화이트닝(white noise 긴축)'을 기시화시켰다"며 "기자회견 이후 시장의 반응은 일단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지난해 6월 벤 버냉키 전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글로벌 자금의 방향성은 빠르게 재편됐다"면서 "그러나 신흥 취약 5개국으로 묶였던 이들 증시의 향방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최근 증시 차별화는 바로 경상수지 개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브라질과 터키의 경상수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경상수지는 개선세를 나타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에너지와 곡물 수출 비중이 높은 인도의 경우 유로존 수요 회복과 최근 곡물 가격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좋아졌다. 중국, 일본, 한국을 수출 대상국으로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수출 대상국의 수요 회복과 함께 경상수지가 빠르게 개선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난해 6월처럼 금리인상을 통한 악재와 호재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향후의 금리 인상은 유동성 회수와 자금 이탈의 가속화라는 측면에서는 신흥국에 악재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금리인상이 미국 경기 회복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은 오히려 이들 증시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유선준기자

정부, 지역 산업 육성 올해 6500여억 투자

정부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6500억여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1일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지역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또 현 정부의 지역 발전 정책에 따라 새롭게 지원될 시·도 협력 산업과 주력 산업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홍 제1차관을 비롯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산업협력권 시범사업 240억원을 비롯해 시·도 특화사업 2463억원 등 14개 시·도에서 시행될 7개 세부 사업에 국비 5572억원, 지방비 985억원 등 655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지원이 확정된 시·도 대표 산업은 시·도 간 자율적 협의로 도출된 협력 산업 16개와 시·도 스스로 발굴해 중추적으로 육성할 주력 산업 63개다.

산업부와 시·도는 회의 직후 산업협력권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황재용기자 hoa###

보건의료 국제표준 논의 'GS1 컨퍼런스' 국내 개최

글로벌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표준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GS1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월 1일부터 사흘간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제25회 GS1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미겔 로페라 GS1 대표를 비롯해 세계 보건의료업계를 이끄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GS1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세계 보건의료 산업의 표준화 동향과 글로벌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행사로 매년 2회 개최되며 한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GS1(Global Standard No. 1)은 상품 및 거래처의 식별과 거래 정보의 교환을 위한 바코드, 무선인식(RFID), 전자문서 등 국제표준의 개발·보급·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 민간 기구다. 전 세계 111개의 회원 기관이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농심 등 국내 제조·유통기업과 월마트, P&G 등 글로벌 제조·유통기업 200만 개사 이상이 GS1 표준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미IT, 도미노코리아, 코에지어코리아 등은 국내 선진 바코드 기술과 이력 추적 솔루션 시연을 위한 홍보 부스를 마련했으며 명지병원, 티세이팜, 분당 서울대병원은 참관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김수진기자 ksj###

보잉기·에어버스도 날게 하는 힘

대한항공 '부품 생산기지' 부산 테크센터 탐방

대한항공은 무안기 개발뿐 아니라 민항기 부품 개발·생산, 군용기와 민항기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항공우주사업본부를 거느리고 있다. 항공우주사업본부는 서울에 있고, R&D센터는 대전에, 테크센터는 부산에 각각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기자가 찾은 테크센터는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 있으며 79만6000㎡의 면적에 조립공장, 도색공장, 정비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도장공장이다. 이곳에서는 대한항공과 계약을 맺은 세계 23개 항공사의 여객기 도장 작업이 이뤄진다.

◆차세대 B787 제작 참여

대한항공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기종의 민간 항공기 구조물 설계 및 제작 기술을 축적했으며 현재 보잉 B787 개발 사업과 에어버스 A350 기종의 카고 도어(Cargo Door)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는 보잉사의 B787 제작 및 설계 사업에 참여해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 '후방 동체(After Body)', 날개 구조물인 '플랩 서포트 페어링(Flap Support Fairing)' 등 6가지 핵심 부품을 부산 테크센터에서 제작하고 있다. 레이키드 윙 팁은 공기저항을 감소시키는 날개 구조물로, 대한항공이 곡선으로 디자인해 보잉사가 채택한 것이다.

◆A320 샤크렛 생산량 1000개 돌파

대한항공이 독자 개발한 에어버스 A320 시리즈 항공기 날개 부품 '샤크렛(Sharklet)'은 최근 생산량 1000개를 돌파했다. 샤크렛은 A320 항공기 날개 끝에 부착하는 기, 자형 구조물로 항공기의 공기저항을 감소시켜 연료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대한항공은 샤크렛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오토 무빙 라인 시설을 2013년 4월 구축했다. 2012년 4월 양산 1호기 납품 후 한 달에 100개의 샤크렛을 생산하는 기록을 낸 바 있으며 현재는 1일 4개, 월평균 80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부품으로 오는 2017년까지 총 4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 엔지니어들이 A320 샤크렛 최종 조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박기자 lemar@metroseoul.co.kr

롯데마트 '반값 LED 전구' 출시 롯데마트는 지난 31일 친환경 절전형 전구로 각광받고 있는 LED 전구를 시세보다 50%가량 저렴하게 선보였다. LED전구는 백열전구 대비 80%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며, 수명은 10년 이상이다. /연합뉴스

저소득 가구 위한 보급형 디지털 TV 최대 4만원 인하

앞으로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 가구는 셋톱박스 없이 TV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클리어쾀TV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디지털 TV 가격의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가격 조정을 통해 총 8개 모델 중 4개 모델의 가격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4만원까지 인하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 일부 인하는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원 대상 가구는 디지털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모든 저소득층 가구이며, TV 구매는 가구당 1대로 제한된다.

보급형 디지털 TV 가격은 향후 주기적인 시장 가격을 점검해 올해 7월에도 재조정할 계획이며, 9~10월에는 2015년 보급 대상 디지털 TV를 신규 공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디지털 TV 보급 지원사업은 2017년 12월 말까지 계속 추진된다.

/이재영기자 ly####

4대 그룹 인·적성 검사일 올핸 안겹친다

5일 현대중·LG화학 시작 상반기 채용 줄이어

올해는 4대 그룹 인·적성 검사일이 모두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자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늘어난 셈이다.

지난 31일 채용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5일에는 현대중공업과 LG화학을 시작으로 CJ그룹(6일), 현대자동차그룹(12일), 삼성그룹(13일), 금호아시아나그룹(19일), 현대오일뱅크(20일), LG전자와 LG유플러스(26일), SK그룹(27일) 등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가, CJ그룹과 기아자동차가 각각 같은 날 시험을 쳐 많은 구직자의 아쉬움을 샀던 지난해와는 달라진 양상이다.

인·적성 검사는 지원자의 성격이나 기지관 등이 각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보는 시험으로, 대개 서류전형을 통과해야만 볼 수 있다. 물론 인·적성 검사 이후에도 면접 등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이번 상반기에 삼성그룹은 5000명, 현대자동차그룹은 2300~2400명, LG그룹은 1500~2000명, SK그룹은 500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CJ그룹이 600명, 현대중공업이 1100명, 금호아시아나그룹이 1600명의 신입사원을 상반기에 뽑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한국경기자 kanigo@

예능 달군 '먹방' TV광고도 삼키는 중

버거킹 이정재·참깨라면 추성훈 부녀 화제 이어 삼성 세탁기 '아기사랑' 유튜브 200만 조회 인기

인터넷 방송을 시작으로 영화·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먹음직스럽게 먹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방송을 뜻하는 일명 '먹방'의 인기가 뜨겁다.

최근에는 트렌드에 민감한 광고계에도 먹방 열풍이 불고 있다. 국적·성별·나이를 막론하고 복스럽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담은 광고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우선 최근 삼성 세탁기 아기사랑 플러스가 공개한 두 편의 광고 영상(사진)에는 모성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귀여운 여자아기가 커다란 조각 딸기 케이크와 이유식 등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볼이 빵빵해지도록 입안 가득 커다란 딸기를 넣고 오물오물 먹는 아기의 모습이 영상 속에 귀엽게 표현됐다. 또 자신의 얼굴만 한 딸기 케이크를 한 손에 들고 먹거나 이유식을 손가락으로 떠 먹으며 옷과 입 주변에 잔뜩 묻히는 모습이 사랑스럽게 그려졌다. "엄마들은 말하죠. 그만 좀 묻히라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라는 아기 입장에서의 내레이션이 영상 속에 더해지며 또 다른 재미를 전한다.

이처럼 음식을 맛있게 먹는 아기의 모습과 함께 삼성 세탁기 아기사랑 플러스의 폭폭삶음·절약삶음·아가옷코스 기능 등을 소개한 영상은 유튜브 기준 2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높은 인기를 얻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기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먹고, 살고, 사랑하는' 일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 맛있게 음식을 먹는 아기의 모습을 영상에 함께 담아냈다"고 말했다.

버거킹의 콰트로치즈와퍼 광고에선 배우 이정재가 검은색 공간에 홀로 앉아 햄버거만을 먹는다. 카메라는 햄버거를 먹는 이정재의 상반신만을 타이트하게 촬영한다. 불필요한 소리나 배경은 모두 없애고 음식과 음식을 먹는 사람에만 포커스를 둠으로써 맛있게 먹는 모습을 더욱 극대화했다. 두툼한 패티와 4가지 종류의 치즈가 꽉 들어찬 햄버거를 한입 베어 물며 맛있게 먹는 이정재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식욕을 자극한다.

맛있게 먹는 모습이 인상적인 광고를 떠올린다면 라면 광고도 빼놓을 수 없다.

오뚜기의 참깨라면 광고는 추성훈·사랑 부녀의 라면 먹는 소리를 극대화해 표현했다. 광고 내내 추성훈은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깔나게 라면을 먹는다. 그릇째 라면 국물을 들이켜며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한다. 여기에 먹방계의 신예라 불리는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아빠가 주는 참깨라면의 면발을 맛있게 먹는 모습과 소리가 보는 이들의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시간·횟수 제한없는 '프라임 무비팩' 올레tv는 31일 '한국의 넷플릭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라임 무비팩'을 선보였다. /올레tv 제공

최성준 '백수 딸' 재산 논란

오늘 방통위원장 청문회 야당 '결격 사유' 쏟아내

최성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 측이 최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정부가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인 고삼석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리며 강력한 반발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가 제출한 '공직후보자 재산공개 확인서'에 따르면 특허법원 부장판사 시절이던 2005년에 최초로 등록 재산이 공개됐는데 당시 장녀 예금을 7104만원으로 신고한 후 2009년 7784만원, 2010년 9702만원으로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학 1학년 때부터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증가해 9년 동안 장녀의 예금은 무려 2배가량 증가했다"며 "소득 없이 1억4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예금을 보유한 장녀는 현재 월세 110만원짜리 오피스텔에서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거액 예금은 변칙 증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최 후보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관용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가 총 28번에 걸쳐 관용차량을 공휴일에 사용했다"며 "이 중 한 번은 세미나에 참석했고 다른 한 번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공무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26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승희 의원 역시 "안산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최 후보자가 인선~금정 간 지하철 4호선이 착공될 당시인 1986년 안산시의 대지를 동생과 함께 매매했다"면서 "최 후보자는 2010년 11월에 3억8000만원에 이 대지를 매도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9000만원을 챙겨 약 5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 진행되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할 전망이다. 실제로 방통위 안팎에선 최 후보자의 전문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단말기 유통법, 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주가 영업정지 일정 결정, KT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한 처벌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방통위원장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자칫 각 현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재영기자 [illegible]

삼성·애플 '2조원 배틀'

2차 특허소송 손배 규모 2배로 불어날 전망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2라운드가 가열되면서 소송가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특허소송에서 20억 달러(약 2조13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2011년 이래 내놓은 휴대전화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해 총액이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란 계산이다.

애플은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스마트폰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 5개에서 삼성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도 2차 소송에선 아이폰5과 아이패드 미니 등 애플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200만 달러(약 234억63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애플과 삼성전자 간 1차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법원은 배상금을 9억2900만 달러로 감액해 확정했다.

/이국명기자 kmlee@

한국 휴대전화시장 규모 3년뒤 세계 15위로 하락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 규모가 2017년 15위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지난해 세계 13위 규모였던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 크기가 2017년 15위까지 하락할 것이란 분석을 지난 31일 내놓았다.

조사에 따르면 2012년 3260만 대 규모였던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 규모는 지난해 2510만 대 규모로 줄어들었다. SA는 우리나라의 이 같은 감소 추이가 지속돼 2017년 휴대전화 시장 규모 세계 순위가 15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11위를 기록했다.

업계는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 규모 축소 이유로 보조금 규제와 롱텀에볼루션(LTE) 제품의 내수화 현상 정체를 거론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임대소득 과세 부적정"

공인중개사 83% 답해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2·26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의 지사·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1173명을 대상으로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적'이 82.9%(973명)로 나타났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17.1%(200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2·26대책 이후 매매시장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26대책 이후 매수세(매매 문의)를 묻는 질문에 78.5%(921명)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비슷한 수준이다'는 18.1%(212명), '늘었다'는 3.4%(40명)로 나타났다.

반면 2·26대책 이후 전세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65.7%(771명)로 가장 많았고 '올랐다'가 29.0%(340명), '내렸다'는 5.3%(62명) 순으로 꼽아 2·26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2·26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는다면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2·26대책 및 임대소득 과세 철회(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2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시행 시기 유예, 세율 및 대상 조정 등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책을 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견해도 많았다.

한편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1173명(수도권 628명, 지방 545명)이며 조사 기간은 3월 20~28일까지다.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 95%에 ±0.94%포인트다. /박선옥기자

전국 공인중개사 대상 임대소득 과세 평가

브랜드 '美분양' 노려라

2분기 전국 7만1804가구 입주… 잔여물량 금융혜택 등 풍성

봄 이사철을 맞아 입주를 앞둔 미분양 단지들의 막바지 분양이 한창이다. 건설사들이 이들 아파트가 골치 아픈 '준공 후 미분양'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각종 금융 혜택이나 입주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수요자들을 유혹하고 있어서다.

지난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2분기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총 7만1804가구(조합원 물량 제외)에 이른다. 전년 동기 대비 49.4%나 증가한 것으로, 서울 1만2718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3만2615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지방에서는 3만9189가구가 입주한다.

이 중에서는 10대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총 8개 단지 6994가구다. 4월 평균 81.45대 1로 높은 인기를 누렸던 부산 '래미안 해운대'를 시작으로 5월 '개봉 푸르지오'와 '역삼 더샵', 6월 '래미안 강남힐즈' 등은 주인을 모두 찾고 입주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반해 아직 분양 중인 단지들은 입주 전 주인을 찾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한화건설이 경기도 김포시 풍무5지구에 짓는 '한화 꿈에그린월드 유로메트로'는 5월 입주 예정으로 대한주택보증이 올해 1월 5일부터 시행하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에 가입한 2차 전세 상품의 계약을 진행 중이다.

입주와 동시에 풍무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 이용이 가능하고, 주변으로 풍무초·고교를 비롯한 6개의 초·중·고교가 위치해 있다. 단지 바로 옆 풍무디목적체육관과 홈플러스 등의 생활편의시설도 갖췄다. 전용면적 84~117㎡, 총 1810가구의 대단지로 구성된다. 84㎡ 기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1억6000만원부터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다.

현대건설은 '퇴계원 힐스테이트'와 '강서 힐스테이트'를 분양 중이다. 각각 4월과 6월 입주를 앞뒀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선보인 '퇴계원 힐스테이트'는 전체 1076가구의 대단지로 전용면적 84~99㎡로 이뤄졌다. 계약금 2000만~2500만원 정액제를 실시하고 일부 세대에 발코니 확장비를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152㎡ 총 2603가구 규모. 현재 일부 대형 평형대 물량이 남아있고, 계약금 2500만원 정액제가 적용된다.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화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내발산초, 발산초, 덕원중·명덕중·화곡중·고, 덕원여고·덕원여고, 명덕외고, 명덕고, 명덕여고가 가깝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지 설계나 커뮤니티시설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며 "입주를 앞둔 건설사가 제공하는 혜택 등을 이용해 내 집 마련 또는 전셋집을 구해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email illegible]@metroseoul.co.kr

분양자에게 고통 준 용인 '대주 피오레' 횡령·배임 혐의로 판결을 받은 허재호 전 회장의 대주그룹이 건설한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대주피오레의 지난 31일 모습. 일부 수분양자들이 아직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주민 다툼 해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아파트 입주민 간 분쟁을 조정하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 생기는 층간소음 다툼 등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아파트가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해소해주는 방법은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지금도 시·군·구에 분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도 2012년 기준 11건으로 저조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법에 규정된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 관리 부문을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증가하는 분쟁과 주민들의 각종 요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연내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은 2심 재판부 역할을 하면서 그 결정 사항은 법원의 조정 결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굳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아파트 입주민 간 각종 분쟁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또 입주민 상담, 분쟁 조정,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긴다. /박선옥기자

호반 사랑나눔이' 서울숲 봉사활동 호반건설 사내 봉사단 '호반 사랑나눔이'는 지난 주말 서울 성동구 소재 서울숲을 찾아 봄꽃이 나무 심기, 낙엽 및 주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호반건설 제공

1분기 해외건설 수주 1년새 31%↑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이 지난 같은 기간(134억 달러)보다 31% 증가한 175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역대 1분기 수주 실적 가운데 2010년 1분기의 281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우리 기업 간 경쟁력을 갖춘 부분의 합작(컨소시엄)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그간 수주지원단 파견 등으로 인한 신시장 개척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139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79%를 차지해 전통적인 텃밭 지역을 중심으로 수주가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는 각각 23억 달러와 10억8000달러로 13.1%와 6.2%를 점유하는 데 그쳤다.

이 중 중동 지역에서는 이라크 카르빌라 정유공장(60억4000달러), 알제리 복합화력발전소 5개소(33억5000달러)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 수주에 힘입어 지난해 동기(54억 달러)보다 158% 증가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빈딘4 석탄 화력발전소(15억달러)를 수주했으나 대규모 플랜트·토목 공사 수주가 감소하며 지난해 동기(74억 달러) 대비 31% 수준에 머물렀다.

중남미는 전체 수주액은 크지 않았지만 신시장 개척 노력을 강화한 결과 칠레 BHP 복합화력 프로젝트(4억4000달러)와 자카오(Chacao) 교량건설사업(3억3000달러) 등을 수주해 전년 동기(6000달러) 대비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공종별로는 대형 정유공장 및 발전소 공사 등 플랜트 수주가 이어지며 플랜트 건설에 162억 달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이어 토목 6억4000달러(3.6%), 건축 3억9000달러(2.2%) 순으로 집계됐다. /박선옥기자

주택가격 7개월째 상승

한국감정원은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월 대비 0.23% 올라 7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 과세 방안에 따른 관망세가 형성되고 있지만 봄 이사철을 맞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중소형 위주로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가격이 올랐다.

수도권과 지방이 각각 0.3%와 0.17% 오른 가운데 대구시가 0.54%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경북(0.36%), 경기(0.34%), 인천(0.33%) 등도 평균 이상 올랐다.

이에 반해 세종시(-0.01%)는 최근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누적되면서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남(-0.07%)과 제주(-0.01%)도 약세를 보였다.

전세가격은 신혼부부 및 직장인 수요가 이어지며 전국적으로 0.47% 상승했다. 수도권이 0.73%, 지방은 0.23%가 각각 올랐다. /박선옥기자

'모바일 게임 한류' 멍석 깔아주는 구글

구글플레이 총괄 디렉터 방한 국내 개발 업체 지원 팔 걷어

모바일 플랫폼 최강자 구글이 한국 게임에 유난히 공을 들이고 있다.

구글의 앱장터인 구글플레이를 총괄하는 디렉터가 방한해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한 구글 앱 몰을 이용해 게임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할 정도다.

최근 중국의 거대 인터넷기업들이 속속 국내 게임사에 거대 자본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구글도 한국 게임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코리아는 31일 구글플레이 론칭 2주년을 맞아 '구글플레이와 게임'이라는 주제로 국내 게임 개발사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조언과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구글은 게임 앱 개발의 ▲디자인과 창작 ▲유통 ▲수익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한국 개발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우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개발자들이 게임 그래픽과 다양한 기능을 최적화함으로써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 번역 기능으로 현지화를 지원한다.

토종 개발사들이 갖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던 장벽인데 구글의 이러한 툴을 손쉽게 사용해 현지화 서비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게임 내 광고를 유지해 개발사가 수익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전 세계 190개국, 10억 명에게 동시에 게임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이 구글플레이다.

구글플레이에는 현재 100만 개 이상의 앱이 등록됐고 190개국에서 매달 20억 건 이상의 앱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으로는 500억 건의 앱 다운로드가 이뤄졌다.

특히 게임 콘텐츠의 인기는 단연 발군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무료 앱 상위 20개 중 17개가 게임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트렌드는 이어지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 4명 중 3명이 구글플레이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을 정도다.

구글플레이를 총괄하는 크리스 예가 엔지니어링 디렉터는 "안드로이드 기기는 이미 10억 대 이상 개통됐고 지금도 매일 150만 대 이상이 주인을 만나고 있다"며 "한국에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게임 개발사들이 많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높은 성과를 거둔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게임 개발사 성공 사례 발표에는 '리볼트2'의 위고인터랙티브 장순영 이사, '라디오해머'의 바이닐랩 나동현 PD, '이터니티 워리어즈3'의 글루 모바일 코리아 김준희 지사장, '영웅의 군단'의 넥슨코리아 김태환 부사장이 참여해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구글플레이 게임 코너에 올라온 다양한 타이틀

텐센트서 5300억 지원 받은 CJ E&M 경력직 100명 채용

CJ E&M의 게임 계열사들이 100여 명 규모의 경력직 공채를 진행한다.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로부터 5300억원을 지원받은 이후의 첫 행보다.

CJ E&M은 넷마블·CJ게임즈와 애니파크, 씨드나인게임즈 등 산하 10개 자회사들의 경력직 공채 서류 접수를 다음달 6일 오후 10시까지 CJ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에서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공채는 게임 개발, 디자인, 글로벌 사업 지원, 법무, 마케팅 사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전형과 실무·기술면접, 인성면접 등 3단계다.

KT, 국내 업계 최초 '아이폰 Passbook 쿠폰 서비스 시작

KT 아이폰 액세서리 쿠폰족 발행 아이폰 패스북 쿠폰 서비스가 시작됐다. KT는 올레 액세서리숍에서 6가지 스마트폰 액세서리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패스북 쿠폰을 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KT 제공

이젠 아이패드로 문서 척척 전용 키보드 시장도 신났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주말 애플의 아이패드용 오피스를 출시하면서 전용 키보드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아이패드의 거의 유일한 단점으로 지적됐던 업무용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PC나 노트북 못지않은 업무 처리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대표적인 제품은 벨킨의 아이패드 에어용 '코드 울티메이트 키보드 케이스'(사진)다. 애플 마니아 사용자들 사이에서 '완전판'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이 일품이다. 언뜻 보면 애플의 노트북 '맥북'으로 착각할 정도다. 400g 내외의 무게로 휴대성도 뛰어나다. 특히 키보드 상단 중앙에 자석을 내장해 아이패드를 원하는 각도로 놓고 작업할 수 있어 편하다.

아이패드 미니 사용자에게는 로지텍 울트라 씬 키보드 미니가 제격이다. 7인치의 작은 크기 안에서도 풀 사이즈 키보드를 갖춰 손쉬운 타이핑이 가능하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와 잘 어울리는 슬림한 알루미늄 커버를 장착해 태블릿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접으면 핸즈 프리 스탠드로 사용할 수도 있다.

충전 없이 최대 155시간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도 있다. 벨킨의 아이패드 미니용 '코드 퍼스트핏(FastFit) 키보드 케이스'는 절전 모드 자동 해제 자석 내장으로 케이스를 열 때만 작동해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다. 홈 버튼뿐만 아니라 시리도 동작시킬 수 있고 찾기·오리기·복사, 음악 재생 등을 키보드 자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을 높여준다. /차의성기자

낡은 안방극장, 앱 서핑되는 스마트 TV로 변신

정점IT리뷰 - 아수스토어 AS-302T

일반 TV로도 스마트 TV와 같이 인터넷 서핑, 애플리케이션 내려받기 등의 기능을 즐기고 대용량 파일도 척척 저장할 수는 없을까.

이같이 다소 '황당한' 상상을 한다면 네트워크스토리지(NAS) 전문업체인 아수스토어의 'AS-302T'가 제격이다. PC가 아닌 TV에 직접 연결해서도 110여 개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을 감상하는 'XBMC 플레이어',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는 '크롬 웹 브라우저', 블로그처럼 꾸미는 '포토 갤러리' 등 필요한 앱을 골라 내려받으면 일반 TV도 단숨에 스마트TV로 변신한다. 특히 영상·음성을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HDMI 포트가 탑재돼 있어 연결하는 것도 손쉽다.

최근 업데이트된 시스템소프트웨어(펌웨어)인 아수스토어 데이터 매니저(ADM) 2.1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재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 덕분에 전문가가 아니어도 손쉽게 NAS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AS-302T'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설치를 시작하면 마치 아이폰에서 본 듯한 여기저기한 아이콘이 등장한다. 사용자 설정, 백업·복원, 파일 탐색기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으로 접속해 저장된 동영상을 즐기거나 필요한 파일을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여기저기 흩어진 파일을 원하는 시간에 백업받는 기능도 편리하다.

다만 사용자 매뉴얼이 빈약하고 네트워크 연결 등에서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인 점은 아쉽다. /이국명기자 kmlee@

타파웨어 '피크닉 키트' 출시

다파웨어 브랜즈가 본격적인 피크닉 시즌을 맞아 간편하고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타파웨어 피크닉 키트'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2가지 구성의 키트로 구성됐다. 키트 1은 간막이와 손잡이가 있어 이동이 편리한 '2단 구디 박스'와 '사랑 컵 세트 뭉쁘' '라블리 텀블러 250㎖'와 '에코 물통 시각 1ℓ 플립탑'으로 구성됐다. 키트 2는 '라블리 에브리데이 보울' '라블리 스낵컵 세트' '러블리 런천 플레이트 대형' 등 아이템들이 들어있다.

제품 문의 080)023-8811·www.tupperwarebrands.co.kr

/정혜인 기자

'깐깐한 그 회사' 소비자 입이 쩍!

식품업계 원료·원산지 자체 검증 '안심 캠페인'

환경오염과 방사능 우려 등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료의 안전성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내세운 식품업계의 '안심 캠페인' 열풍이 거세다. 업계는 원료의 원산지는 물론 제품의 생산·관리 과정을 공개하는 등 저마다 차별화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세노비스는 최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써서 깐깐하게 만드는 브랜드 원칙을 담은 '심플리 트러스트' 캠페인을 선보였다. 수많은 건강기능식품 중 무엇을 사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원료로 만들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금속 농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30㎝ 이하의 소형 어류에서 추출한 오메가 3, 청정 안데스산맥에서 재배해 국제 유기농 인증기관인 IMO에서 인증받은 로즈힙만 사용한 식물성 관절 건강기능식품 등을 예로 들어 원산지와 원료 선택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를 담았다.

G마켓은 오픈마켓 최초로 G마켓 식품 담당자로 구성된 식품 검증단이 원산지에 직접 찾아가 생산부터 가공, 포장, 배송 작업까지 참여해 고객에게 추천하는 안심 구매 캠페인 'G마켓이 간다'를 선보였다.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G마켓이 직접 검증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각 지역별 우수한 제철 식품과 지역 특산물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최근에는 산지 촬영 동영상을 통해 생산자들이 전하는 지역 특산물과 제품 고르는 방법 등을 알리며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청정지역 알래스카 0% 첨가물, 100% 자연산 연어'를 내세운 '알래스카 연어'를 선보이며 경쟁 제품과의 차별화를 선언했다. 제품 원재료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와 대두유, 정제수·정제 소금 외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무첨가, 무색소' 및 자연산 연어의 풍부한 영양과 신선함을 그대로 담은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

/정영일 기자 ·····@metroseoul.co.kr

'아셍가바 현미쌀' 지매 예방

영남대학교 서학수 박사팀에서 개발한 특허 품종인 유기농(무농약) '아셍가바 현미쌀'이 최근 시판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GABA) 성분이 다량 함유돼 당뇨에 의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뇌세포 대사를 촉진시켜 수험생의 집중력 강화, 기억력 증진, 청소년의 성장 발육 촉진에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현미의 8배로 중풍과 치매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가격은 5kg 5만5000원, 10kg 10만원으로 통신 판매 중이다. 현재 전국 대리점(무점포) 및 담당 주부 사원도 모집 중이다.

제품 문의 02)2068-5845

/김학철 기자

아웃백 "월요일은 야구데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2014년 한국 프로야구 공식 후원 협약을 기념해 매주 월요일 아웃백 구 홈런 회원을 대상으로 야구데이를 운영한다. 매주 월요일 지난 일요일 경기를 기준으로 이긴 팀을 응원한 고객에게는 아웃백 슈리믹 오지 치즈 후라이즈를 무료로 제공하고, 진 팀을 응원한 고객에게는 위로의 맥주 1잔을 무료로 제공한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제공

퇴행성관절염 무료 줄기세포 치료

엄홍길휴먼재단 저소득층 환자 후원 캠페인 진행

평균 연령이 늘어나면서 퇴행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중 퇴행성관절염은 우리가 움직이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관절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국내에서는 60대 이상의 70% 정도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다.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발목 또는 어깨 등 관절이 있는 부위에서 발생하는데 특히 무릎관절은 체중의 부담을 견뎌내야 하므로 다른 관절보다 손상되기 쉽고 상황에 따라 퇴행성 변화도 빨리 찾아온다.

◆퇴행성관절염, 조기 발견이 중요

퇴행성사상염을 조기에 발견한 초·중기의 상태라면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한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퇴행성관절염이 계속 진행돼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라면 연골이 닳아 없어져 뼈와 뼈가 맞닿은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무릎의 모양이 O 자형으로 변형되고 심하게 붓거나 물이 차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닳아 없어진 연골을 인공 구조물로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저소득층 퇴행성관절염 환자 돕기에 나선 산악인 엄홍길 대장 /엄홍길휴먼재단 제공

◆저소득층 환자를 위해 지원

최근에는 건강검진이 생활화되면서 퇴행성관절염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또 줄기세포 치료는 그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면서 관절염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 치료는 최신 치료법인 만큼 환자가 내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이에 엄홍길휴먼재단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을 위해 후원에 나섰다. 엄홍길휴먼재단이 저소득층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에게 '줄기세포 치료 무료수술 캠페인'을 펼치며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

캠페인은 엄홍길 대장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만 했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엄홍길휴먼재단이 이번 후원을 주관하며 무릎 퇴행성관절염 치료 대상자 접수를 받고 있다.

/송학용 기자

◆치료 후원 신청 방법

이번 행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이외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화 : 02)2272-8849(엄홍길휴먼재단 후원 캠페인 담당자)

인터넷 : 엄홍길휴먼재단 홈페이지(www.uhf.or.kr) 접속 후 우측 후원 캠페인 배너를 통해 신청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

오뚜기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10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스위트홈 제19회 오뚜기 가족요리 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하고 4월 20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국내 최대의 요리 축제인 이 행사는 요리 구분 없이 진행하는 자유경연과 지정 요리경연으로 진행되며, 3인 가족 기준으로 예선을 거친 150여 가족이 출전하게 된다.

요리경연뿐만 아니라 오뚜기 제품 시식코너, 심장병 완치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어린이 요리교실, 다문화가정 요리교실, 월드컵 놀이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된다.

본선 참가 150가족이 낸 참가비(150만원)와 오뚜기에서 참가비 액수만큼을 출연해 한국심장재단에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은 이 기간 오뚜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참가 신청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김학철 기자

키엘 '그린 이벤트' 화분 증정

키엘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오늘(1일)부터 '그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키엘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1000원을 기부하면 키엘 로고가 새겨진 미니 화분을 선물받을 수 있는 행사다. 화분 소진 시까지 1인 1개 한정 수량으로 증정되며 모금된 기부금은 환경보호 활동에 쓰여질 예정이다. 또 매장에 정품 공병을 가져오면 여행용 사이즈 디럭스 샘플 또는 정품을 증정받을 수 있는 키엘 공병 재활용 캠페인도 진행한다.

그린 이벤트는 전국 49개 백화점 키엘 매장과 가로수길·청담동 키엘 부티크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정혜인 기자

BravoComm

Sofia Ballet

SWAN LAKE

소피아 발레 백조의 호수

구 성 I Act & II Act - 60분, III Act - 30분, IV Act - 40분
음 악 차이콥스키 P.I Tchaikovsky
예술감독 베사 토노바 Vesa Tonova
단 장 레네타 율리 Reneta Yully
안 무 요르단 크라세프 Yordan Krastev
지 휘 네이든 토도로프 Nayden Todorov
반 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14. 4. 23 (수) - 25 (금) 7:30 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4. 27 (일) 가톨릭문화원 아트홀 4. 29 (화)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1544-6399 하나티켓 1566-6668
티켓 | VIP 16만원 R 12만원 S 9만원 A 7만원 B 5만원 공연문의 | 브라보컴 1661-1605, 02)3463-2466 www.bravocomm.co.kr

'태양을 피하는 멋' 클립온·콰트로 뜬다

선글라스 트렌드 클래식 디자인·기능성 부각

밤보다 낮이 길어졌다. 많은 양의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지키기 위해 선글라스를 서서히 꺼낼 때다.

선글라스 선택 시 얼굴형에 맞거나 취향에 따라 고르는 게 일반적이나 종류가 다양해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선글라스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다.

이번 시즌에는 클래식한 디자인에 활용도가 높은 클립온 선글라스(이하 클립온)와 아웃도어 활동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해 스포티즘 선글라스가 각광받을 것으로 패션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클립 붙이면 안경이 선글라스

클립온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기피하던 아이템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 복고 바람과 함께 클래식한 디자인이 급부상하면서 올 시즌에도 클립온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선글라스는 일상생활에서 일반 안경으로 착용하다가 외부 활동 시 클립을 부착해 선글라스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실용적이면서도 다양한 기술을 렌즈에 적용할 수 있어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무엇보다 독특한 디자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잡는다.

안경 다리의 안쪽과 바깥쪽이 다른 색상으로 배색된 제품은 보다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다.

클래식하고 빈티지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을 땐 스퀘어 형태의 클립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부드러운 스퀘어에 어둡고 짙은 컬러톤이 매치된 클립온은 모노톤 의상에 잘 어울리며 톤온톤 의상과 연출하면 깔끔하면서도 개성 있는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아웃도어는 기능성 선글라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아웃도어 활동 시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무게가 가벼운 기능성 선글라스가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특히 햇빛이 강한 날 야외 활동 시 콰트로 렌즈(4중 렌즈)를 사용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다각선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할 수 있다.

아웃도어용 선글라스는 블랙 컬러를 선택해 어두운 색상의 옷과 매치할 땐 스포티한 느낌을, 밝은 옷과 매치했을 땐 세련된 분위기를 내는 것이 좋다고 제나 스포츠 관계자는 조언한다.

스포츠를 즐기는 남성들은 노즈패드와 안경 다리 끝에 러버를 사용한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활동 시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미러렌즈 스타일의 선글라스는 스포티한 느낌을 증가시켜 야외 운동 시 패션 파트너로 주목받을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1604@metroseoul.co.kr

아모레 VB '전지현의 뷰티푸드' 아모레퍼시픽의 뷰티푸드 브랜드 VB(Vital Beauty)는 새로운 브랜드 모델로 배우 전지현을 선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지현과 함께 하는 VB의 신제품 콘텐츠는 4월부터 케이블 TV CF, 매거진 및 유튜브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제공

직장女 76% "생리휴가 써본적 없다"

직장 여성 10명 중 8명은 법으로 보장된 생리휴가를 전혀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용해본 적 있는 여성조차 사용 빈도가 1년에 한두 번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한킴벌리가 20~30대 여성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생리휴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92%,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안다는 응답이 76%로 높은 인식률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생리휴가를 사용해보지 않은 여성이 76%에 달해 대다수의 여성들이 생리휴가 사용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들이 생리휴가 사용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상사에게 눈치가 보여서'(42%), '주위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아서'(34%), '남자 동료에게 눈치 보여서'(18%) 순으로 나타났으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 73조에 명시된 권리다.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난 1953년 제정됐으며 월 1일의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직장 여성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 사회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유한킴벌리는 생리휴가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연결돼 저출산 기조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생리휴가 권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휴가를 수락한 상사 중 '베스트 보스'를 선정해 해당 팀에 문화 활동 지원비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신청자의 휴가를 위한 호텔숙박권도 증정한다.

/황재용 기자

서울패션위크 '옷보다 메이크업' 활짝

뷰티 브랜드 콜라보 기념 한정판 제품 출시 잇따라

'2014 F/W 서울패션위크'가 지난 3월 26일 종료된 가운데 백스테이지에서 뷰티 브랜드들이 선보인 메이크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뷰티와 패션 분야의 협업으로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올가을~겨울 시즌 메이크업 경향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네즈는 '라네즈 미츠 패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3일 주시 버튼 컬렉션에 참여했다. 권조현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의 주도로 깨끗한 피부에 촉촉하고 선명한 색감의 '세럼 인텐스 립스틱'으로 볼륨감 있는 입술을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라네즈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주시버튼의 '더가스 플레잉 레오퍼드' 패턴 패키지에 '세럼 인텐스 립스틱'과 '워터 드롭 틴트' 2종을 담은 립스틱 키트를 5월 중순 출시할 예정이다.

바비브라운의 경우 25일 디자이너 장민영의 드민(DEMIN) 패션쇼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원장이 직접 메이크업 디렉팅을 진행했다. '스킨 일루미네이션'과 '퍼펙트 페이스 파운데이션'으로 맑고 윤기 나는 피부 표현을 한 후 버건디와 핑크 두 가지 색 립스틱을 섞은 고혹적인 립 메이크업으로 포인트를 줬다.

또 '스몰 페이스 케이스'로 음영을 더해 한층 가름하고 고급스러운 얼굴선을 완성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클리니크는 '저비스픽 인텐스' 출시 1주년을 맞이해 디자이너 계한희의 '카이(KYE)' 패션쇼 백스테이지 메이크업을 진행한 클리니크도 눈길을 끌었다. 클리니크는 '저비스픽 인텐스'와 '래시 파워 마스카라' 등 런웨이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백스테이지를 채웠다.

또 이번 콜라보레이션을 기념해 오는 4일부터 13일까지 13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 제작한 'KYE 익스클루시브 클러치'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벌인다.

/정혜조기자 hjuns@

'캠핑 별미' 통등심돈가스·흑임자너비아니

강강술래 한달간 3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봄철 캠핑·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파격 할인 이벤트를 벌인다.

온라인 쇼핑몰(ssll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 오프라인 전 매장에서 국내산 돼지 등심 부위를 통째로 넣은 통등심돈가스(720g×3박스)는 3만1500원, 자연산 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박스)는 3만78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행사 기간 동안 국내산 돼지고기에 흑임자를 접목한 흑임자한돈너비아니(360g×3박스 2만5200원)와 100% 한우갈빗살로 만든 한우떡갈비(360g×3박스 4만2000원), 갈비맛 쇠고기육포(50g×6봉 2만5800원)도 각각 30% 할인가로 구매 가능하다.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5팩=15인분)는 3만8800원, 소용량 세트(350㎖×5팩=10인분)는 2만25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한돈너비아니와 수제 오돌 소시지로 구성된 피크닉 세트도 30% 할인된 1만17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한편 강강술래는 리솜리조트와 손잡고 리솜포레스트 헤브나인 힐링스파 무료이용권(사우나+찜질방+스파)을 총 50명(1인 2매)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ssllm.com) 경품 이벤트에 신청글을 올리면 참가 가능하다.

/김학철기자

'어메이징 거미줄' 서울 빌딩숲 조준!

영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의 주인공 제이미 폭스·엠마 스톤·앤드류 가필드(왼쪽부터)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 투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한국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현했다 /[illegible] 제공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24일 개봉한다. 국내에서 485만 관객을 모으며 흥행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 이어 2년여 만에 선보이는 2편은 전편의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더욱 업그레이드된 스케일과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스파이더맨의 삶에 책임진 피터 파커(앤드루 가필드)가 치명적인 사고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 일렉트로(제이미 폭스)와 해리 오스본(데인 드한)에 맞서 싸우는 과정을 그렸다.

영화 홍보를 위해 아시아투어를 펼치고 있는 주연배우 앤드루 가필드·엠마 스톤·제이미 폭스, 마크 웹 감독은 지난 31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당부했다.

액션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2' 배우·감독 도쿄 인터뷰

깡마른 슈퍼히어로 힘보다 '위트 강펀치' 롤모델 이소룡
아리랑 좋아하는 '영웅의 여친'… 엔딩크레딧 K-팝 기대를

– 스파이더맨은 다른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슈퍼 히어로들에 비해 마른 몸매를 가졌다. 몸매를 어떻게 관리하나

▶가필드–내가 모델로 삼은 건 리샤오룽(이소룡)이다. 그는 몸매는 말랐지만 멋진 액션을 선보인다. 스파이더맨도 세계 수백만 명의 나처럼 마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다. 직접 펀치를 날리기보다는 위트나 재치로 적을 물리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줄줄이 의상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나 나름대로 훈련해서 체지방을 3~4%로 유지해야 됐다.

– 영웅들이 총출동하는 영화 '어벤저스'에 스파이더맨만 저작권 문제로 등장하지 않는다. 합류하길 원하나

▶가필드–'어벤저스' 합류는 상상만 해도 좋다. 스파이더맨은 토니 스타크와는 잘 안 맞을 것 같고, 브루스 배너와는 잘 지낼 것 같다. 토르는 스파이더맨에 말이 많다고 싫어할 것 같고, 두 사람이 아옹다옹하는 걸 보고 캡틴 아메리카는 짜증낼 것 같다. 하지만 들어가면 팀플레이어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그러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 상상에서는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 이번 영화에서 세 명의 악당과 싸운다.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가필드–옆에 앉아있는 제이미 폭스다. 공격적인 캐릭터에 에너지와 힘을 부어넣은 뿐 아니라 마음까지 표현했다. 그 캐릭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더욱 대적하기 어려웠다.

– 스파이더맨의 롤 역은 고층 빌딩이 많은 뉴욕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가보고 싶은 다른 도시가 있다면

▶가필드–고층 빌딩이 있는 곳이라면 서울·도쿄·두바이 등 세계 어디라도 좋다. 다만 사막 같은 곳은 힘들 것 같다.

– 그웬 스테이시(엠마 스톤)가 스파이더맨의 여자친구로 나온다. 스톤은 실제 남자친구가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이라면 어떨 것 같나

▶스톤–이해하고 존경한다. 그웬의 아빠는 경찰이었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다. 결국 1탄 말미에 목숨을 잃었다. 그웬은 영웅이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해한다. 그래서 본인 역시 사람을 구하고자 의학을 전공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군인과 경찰을 남자친구로 둔 파트너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 폭스가 악당 역으로 새롭게 합류했다

▶폭스–이번 영화에 출연해서 좋은 것은 훌륭한 배우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필드와 스톤이 슈트를 입지 않고 특수효과 없이 촬영하는 것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감독 역시 캐릭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한국에서 슈퍼 히어로물이 잘되는 비결은

▶웹 감독–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가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슈퍼 히어로라서다. 슈트를 입고 있어서 피부색이 노출되지 않아 어떤 나라의 사람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다. 이것이 전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딱히 전략을 세운 것은 아니다. 지금은 엔딩 크레디트에 한국 노래를 삽입하려고 노력 중이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잘되길 바라고 있다.

– 마지막 인사를 부탁한다

▶스톤–서울도 좋아하고 아리랑도 좋아하고 K-팝도 좋아한다.

▶가필드–나도 서울을 굉장히 좋아한다. 엠마 스톤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다. 불고기도 좋아한다. 그리고 지지해줘서 감사하다.

/도쿄(일본)=탁진현 기자 tak0427@metroseoul.co.kr

상큼+청순 에이핑크

첫 입맞춤 표현한 팝 댄스곡 '미스터 츄'로 컴백

걸그룹 에이핑크가 봄 향기를 담은 신곡 '미스터 츄'로 남심을 흔들고 있다.

지난달 31일 공개된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는 섹시 코드나 화려한 퍼포먼스 등 자극적인 요소는 없지만 봄과 어울리는 밝은 멜로디로 풋풋함을 더하고 있다. 오히려 에이핑크의 상큼함과 청순한 매력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튜브에 공개된 뮤직비디오 댓글에는 "역시 에이핑크 순수한 매력이 답이다" "에이핑크답네" "쉬운 안무·섹시 코드 없지만 노래 많이 너무 좋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뮤직비디오 속 핑크색 테니스 코트를 배경으로 안무를 맞추는 멤버들의 모습은 따뜻한 봄을 한껏 머금고 있다.

가요계 히트곡 제조기 이단옆차기와 세이온의 합작품인 '미스터 츄'는 사랑하는 연인과 나누는 첫 입맞춤의 두근거림을 표현한 팝 댄스곡이다.

한편 에이핑크가 이날 공개한 네 번째 미니앨범 '핑크 블로섬'의 타이틀곡 '미스터 츄'는 벅스·지니·올레뮤직 등 3개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성준기자

천재남매 악동뮤지션 온다

이달 6일 프로 데뷔…독특·신선함 담긴 11개 신곡 기대

악동뮤지션이 SBS 'K팝스타2' 우승 1년 만에 프로 무대에 데뷔한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 31일 자정 YG 공식 블로그에 악동뮤지션이 오는 4월 6일 데뷔한다고 알렸다. 악동뮤지션은 2NE1에 이어 올해 YG의 두 번째 주자로 나서는 막중한 임무를 지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7일 우승 후 정확히 1년 만인 이달 7일 데뷔 앨범을 온라인에 발표한다.

총 11곡의 신곡이 수록될 정규앨범을 들고 나오며 전곡의 작사와 작곡은 물론 프로듀싱까지 악동뮤지션 멤버 이찬혁이 도맡았다.

무려 3곡의 타이틀곡을 내세우는 가운데 양현석 대표는 "음반 제작을 한 지 16년째인데 악동뮤지션 1집처럼 타이틀곡을 선정하는 데 어려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디

악동뮤지션

리고지미의 '매력있어'를 처음 접했을 때 느낌처럼 독특한 매력과 신선함이 11개의 신곡들에 잘 녹아있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타이틀곡은 악동뮤지션이 직접 고른 '얼음들', YG가 추천한 '200%', 음원 공개 후 대중이 선택할 세 번째 곡으로 결정됐다. '얼음들'은 어른들을 차가운 얼음에 비유한 노래로 악동뮤지션이 선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느낌의 슬로 곡이다. '200%'는 악동뮤지션의 매력이 잘 녹아있는 미디엄 템포의 곡이다.

한편 양현석 대표는 "씨아·위너·태양·이하이 등 YG 소속 가수들의 앨범 발표 소식이 매우 임박해 있다"고 밝혀 YG 세 번째 주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유순호기자 sure@metroseoul.co.kr

크레용팝 '어이' 쇼케이스 부산 찍고 명동

오늘 음원 공개 예정

걸그룹 크레용팝(사진)이 무료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대중과의 소통에 나섰다.

크레용팝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공개 쇼케이스를 열어 광화문 일대를 들끓게 만들었다. 이어 다음날 오후 8시 부산 서면 센트럴스퀘어에서 공개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크레용팝은 이날 쇼케이스에서 신곡 '어이'를 비롯해 그동안 발표한 대표 히트곡들로 무대를 꾸몄다.

소속사 관계자는 "음원을 공개하기 전 공개 쇼케이스를 여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크레용팝은 길거리 게릴라 공연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면서 팬덤이 형성된 그룹인 만큼 앞으로도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행사를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크레용팝은 1일 다섯 번째 싱글 '어이' 음원을 공개하며 3일 서울 명동에서도 공개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성윤기자

<는드 미' 작곡가>

<'워드 미' 작곡가>

휘성, 김도훈 곡으로 복귀

5월초 미니앨범 발표…명품 R&B 선사

가수 휘성이 2년5개월 만에 명품 R&B를 들고 돌아온다.

지난해 8월 전역한 휘성은 오랜 기간 복귀 준비를 해왔고 다음달 초 새 미니앨범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입대 전인 2011년 10월 미니앨범 '놈들이 온다'를 발표하고 공백 기간을 보냈던 그는 전역 후 JTBC '히든싱어 2'로 재조명 받으며 컴백에 큰 기대를 받아왔다.

휘성의 모창 가수가 '히든싱어2'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어' '가슴 시린 이야기' '안되나요' '위드 미' '인섬니아' 등 여러 히트곡이 동시에 차트 상위권에 재진입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새 앨범의 타이틀곡은 '불치병' '위드 미' 등 휘성의 숱한 히트곡을 만들었던 작곡가 김도훈의 곡이라 더욱 기대를 모은다. 나머지 수록곡은 휘성의 자작곡으로 채운다.

휘성은 이번 앨범을 자신의 장기인 R&B의 매력을 살린 곡들로 채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팬들이 보내준 성원에 감동받은 휘성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유순호기자

소찬휘 내달 소극장 공연

'여성 보컬의 자존심' 소찬휘(사진 왼쪽)가 대중과의 소통에 나선다.

지난달 4일 새 미니앨범 '넥오 콕 커밍리 시즌'을 발표한 소찬휘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소극장 공연을 진행하며 대중 앞에 나선다.

지난 31일 소찬휘 소속사 관계자는 "앨범 발매 후 음악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재 공연 준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부터 규모는 작지만 팬들과 호흡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소찬휘는 중국 진출까지 준비하고 있다.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SBS '별에서 온 그대'의 인기 덕분이다. 전지현이 부른 '티어스'가 주목받으면서 중국 현지에서 '티어스'의 원곡을 부른 가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별에서 온 그대' 영향으로 중국에서 소찬휘까지 찾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내 공연에 집중하면서 중국 진출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성윤기자

4월 가장 기대되는 최고의 웰메이드 장르물 드라마!
살 아 있 었 네…
tvN 금토드라마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
갑동이
4월 11일 금요일 / 저녁 8시 40분 tvN 첫방송
갑동이 웹툰 PC버전 를 검색해보세요

절반의 성공 거둔 '세결여'

다양한 결혼방식 제시로 여심 자극 속 몰아가기 전개 등 아쉬움

SBS 주말극 '세 번 결혼하는 여자'(이하 '세결여')가 지난달 30일 종영하며 40부작의 막을 내렸다.

'세결여'는 국민작가 김수현과 배우 이지아(사진)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극 후반 몰아가기 전개와 억지 설정으로 시청자의 공감지수를 떨어트리는 아쉬움을 남겼다.

시청자들은 종영이 다가오자 작품의 제목을 두고 이지아의 세 번째 결혼 상대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전남편인 정태원(송창의), 김준구(하석진) 둘 중 한 명과 재결합을 한다는 의견과, 오은수(이지아)에게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예상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작가는 세 번째 결혼 상대를 오은수 자신으로 설정하며 그간 사랑·결혼·이혼관에 있어 자립적이고 진취적인 오은수의 캐릭터에 부합하는 결말을 맺었다.

작품에서 악녀를 담당한 계모 채린(손여은)은 정태원의 보살핌으로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 아이까지 임신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여배우 다미(장희진)와의 불륜으로 이혼한 김준구는 오은수 사이에서 난 아들을 키우며 다미와 동거를 시작했다.

'세결여'는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결혼 방식과 가치관을 제시하며 '사람의 완성은 결혼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여성 시청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결말에 다다를수록 극 전개가 급격히 이뤄져 비난받기도 했다. 채린의 불우한 가정 환경에 측은지심을 느낀 정태원이 종영을 2회 앞두고 채린에 대한 태도를 급격히 바꾼 설정과, 작품 속 시간이 사계절을 넘나드는 등의 배경이 개연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특히 다미와 김준구의 동거로 불륜을 옹호하는 듯한 마무리를 지어 '모든 주인공을 커플로 맺어야 했는가'라는 억지 설정에 시청자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세결여' 마지막 회는 시청률 19.4%(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동시간대 1위에 오르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전효진기자 jeonhj@

진짜 사나이 리얼 좇다 안전 놓칠라

박형식 전차 오르다 허리 다쳐 · 샘 해밍턴 목 부상 사고 잇따라

'리얼 입대 프로젝트'를 표방하는 MBC '일밤-진짜 사나이'(이하 '진짜 사나이', 사진)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박형식 샘 해밍턴

지난달 30일 '진짜 사나이' 방송분 전차대대 편에서 박형식은 훈련을 받기 위해 전차에 오르다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박형식은 허리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검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원래 (척추) 4·5번에 디스크가 조금 있는데 심한 것은 아니다"고 진단을 내렸다.

이에 박형식은 "디스크가 있을 줄 몰랐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진짜 사나이' 출연진들은 다른 곳에서 다쳐도 '부상 투혼'이라는 미명 아래 훈련받기를 고집하다 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

지난해 김수로는 여행 인대 파열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진짜 사나이 촬영을 위해 유격 훈련에 참가했고 결국 상태가 심각해져 이기자 부대 전입 첫날 퇴소 조치를 받고 방송에서 잠시 하차했었다.

앞서 김수로는 훈련 도중 허리 부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샘 해밍턴은 지난해 목 부상을 입어 깁스를 한 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에 전입했다. 훈련 불가 상태를 진단받은 샘 해밍턴은 결국 방송을 위해 수사 헌병이 돼 전화 업무를 전담했다. 이후 샘은 깁스를 풀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심각했던 부상 상태를 공개해 시청자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진짜 사나이'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예인들의 군 생활 이야기로 단숨에 인기 예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잦은 사고와 부상으로 인한 하차 등이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시청자들은 "리얼만 좇다 '안전'은 놓치고 있다"며 '진짜 사나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지민기자 @metroseoul.co.kr

사촌언니 유인영 배우로…혜영 MC로

기황후 'K팝스타3'서 활약

사촌자매 유혜영(위 사진) SBS 아나운서와 배우 유인영(아래)이 각각 일요일과 월·화요일 저녁을 책임지고 있다.

슈퍼모델 출신 유혜영 아나운서는 최근 SBS 'K팝스타3'에서 각석 진행을 맡고 있다. 특히 지난달 30일 방송에선 어깨 라인을 드러낸 은색 튜브톱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차분하고 여성스러웠지만 하던 기존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 아나운서는 2006년 한 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3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으며 2011년 SBS 공채 17기 아나운서로 입사해 '한밤의 TV연예', 접속 무비월드' 등을 진행했다.

사촌 언니인 배우 유인영은 MBC 월화극 '기황후'에서 돌궐 바토루의 딸이자 남장 여자 연비수 역으로 극 중간에 투입돼 존재감을 발산하고 있다. 최근 방송된 '기황후' 41회(지난달 25일)에선 가승남(하지원)에게 "왕유를 연모한다"는 속내를 드러내며 권력 암투로 사그라지는 듯 보였던 러브라인에 중심 역할임을 예고했다.

앞서 유혜영·인영은 2012년 SBS '강심장'에서 사촌자간임을 밝혔고 방송에서 두 사람은 큰 키와 늘씬한 몸매, 닮은꼴 미모로 찬사받았다.

/전효진기자

1500여 중국 여성팬 홀린 김우빈

상하이서 팬미팅 개최

배우 김우빈이 1500명의 중국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김우빈은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운봉극장에서 열린 팬미팅에 참석해 가수 이적의 '다행이다'를 부르며 등장해 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어 최근 많은 사랑을 받은 SBS 드라마 '상속자들'을 비롯한 자신의 출연 작품에 관한 이야기를 소탈하게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배우 김우빈이 중국 상하이 운봉극장에서 열린 팬미팅에서 팬들이 직접 보내준 질문에 답하는 'Q&A'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상속자들'에 함께 출연했던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의 강민혁과 배우 박신혜뿐 아니라 가수 비가 영상으로 깜짝 등장해 김우빈의 첫 아시아투어 팬미팅을 축하했다.

또 팬들이 직접 보내준 질문에 답하는 'Q&A' 코너를 통해 팬들과 소통했으며, 팬들의 익살스러운 요구에도 귀여운 모습으로 응해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특히 김우빈은 이번 팬미팅의 하이라이트였던 '우리 하우스' 코너를 통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김우빈표 삼색 주먹밥'을 준비해 무대 위에서 직접 주먹밥을 만들어 팬들에게 먹여주는 다정다감한 모습을 선보였다.

한편 김우빈은 영화 '기술자들' 촬영에 매진하고 있으며 5월 예정된 태국 팬미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상미기자

정려원 첫 MC '합격점'

배우 정려원(사진)이 첫 MC 노전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스토리온 '아트스타 코리아'의 첫 회에서 정려원은 안정적인 진행 실력으로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갔다.

정려원은 현대미술을 어렵게 생각하는 시청자들의 입장을 배려한 듯 심사위원과 참가자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작품 해설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에세이를 낼 만큼 미술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정려원은 최근 제작발표회 현장에서도 "비전문가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MC가 되어 프로그램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트스타 코리아'는 회화·조소·비디오아트·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 15명이 경쟁을 펼쳐 탈락자를 가리는 서바이벌 리얼리티 쇼다. /김지민 기자

신고은 김영희

개그우먼 신고은·김영희 반전매력 한번 보실래요?

KBS 개그우먼 신고은과 김영희가 각각 연극과 화보를 통해 반전 매력을 선사했다.

신고은은 7~11일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에서 오페라 연극 '박쎄스' 공연을 통해 연극 신고식을 치른다. 신고은이 연기할 여자 주인공 수잔나는 셰익스피어의 첫째 딸로 난독 증세가 있어 글 읽기는 힘들어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명랑해 극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그는 KBS 공채 20기 개그우먼으로 KBS2 '개그콘서트' tvN '코미디 빅리그' 등에서 활동했으며 지난해 '개그콘서트-왕해'에서 수라간 상궁으로 2년 반 만에 등장하기도 했다.

현재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 '끝사랑'에서 '앙대요'라는 유행어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영희는 스타엔스타일 매거진 '더 스타' 4월호를 통해 흑백의 모던한 매력을 발산했다.

화보 촬영에서 김영희는 모델 못지않은 자연스러운 포즈와 시크한 표정으로 '끝사랑' 속 촌스러운 아줌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후문이다.

김영희는 촬영 후 인터뷰에서 "경소 패션에 관심이 많아 선후배들로부터 '개그콘서트'의 알렉사 정으로 불린다"며 "취미도 네일아트 캡트 등 아기자기한 것이다"고 밝히는 걸을 끝냈다. /전효진 기자

지난해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연상연하 커플로 큰 사랑을 받은 이종석·이보영 /SBS 제공

2012년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에서 쌍둥이 남매로 호흡을 맞춘 박해진·이보영 /KBS 제공

'이보영의 남자' 이종석·박해진 '닥터 이방인'서 연기 대결

천재 의사 vs 엘리트 의사

'이보영의 남자'들이 한 작품에서 연기 대결을 벌인다.

이보영과 연기 호흡을 맞췄던 이종석과 박해진은 SBS 새 월화극 '닥터 이방인'에 함께 출연해 '신의 선물-14일' 종영 후 빈자리를 채운다.

이보영과 이종석은 지난해 SBS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에서 찰떡궁합 연상 연하 커플로 전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이종석은 이 드라마로 그해 대세 남자 배우로 급부상했고 KBS2 '학교2013'의 반항아 고남순에 이어 '너목들'에선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 순수 소년인 박수하 역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종석은 '닥터 이방인'에서 어린 시절 남북한 정치 거래의 희생양으로 북으로 넘어가 천재적인 흉부외과의로 성장하며 잃어버린 첫사랑 송재희(진세연)를 찾기 위해 돈을 버는 박훈 역으로 그간 보여주지 않은 진한 남자의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닥터 이방인'의 또 다른 주인공 박해진은 냉철함을 지닌 하버드대 학병원 부교수 출신의 흉부외과의 한재준을 통해 우월한 외모와 매너까지 갖췄지만 쉽게 마음을 열 수 없는 사연을 지닌 인물을 그린다.

이보영과는 2012년 KBS2 주말극 '내 딸 서영이'에서 쌍둥이 남매로 인연을 맺었고 작품에서 그는 유쾌한 의대생 이상우 역으로 쌍둥이 누나 서영(이보영)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했다.

두 사람은 이보영 외에 아시아에서 페셔니스타로 각광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지녔다. 이종석은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튜고 보스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행사'에 한국 대표로 초대받아 지난달 27일 출국했다. 이날 그는 모델 출신다운 옷 소화력으로 아시아 대표 배우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박해진은 지난 25일 중국의 유명 디자이너 마크장과 함께하는 브랜드 론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행사에는 200여 개 언론 매체가 참석해 그의 인기를 실감케 했고 마크장은 박해진의 패션 감각을 극찬했다.

SBS '닥터 이방인'은 28일 첫 방송 예정이며 이종석·박해진·진세연·강소라 등 대세 배우들의 만남으로 방영 전부터 화제에 오르고 있다. 작품은 남에서 태어나 북에서 자란 천재 의사 박훈(이종석)과 한국 최고의 엘리트 의사 한재준(박해진)이 남북 최대의 작전을 펼치는 메디컬 첩보 멜로로 '주군의 태양' '시티헌터' '검사 프린세스' 등을 히트시킨 진혁 PD가 연출을 맡았다.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야구 여신' 김민아·배지현 채널 바꿔 경쟁

맞트레이드 화제몰이

일명 '야구 여신'으로 통하는 스포츠 채널 여자 아나운서들의 맞트레이드가 프로야구 개막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민아

배지현

지난달 24일 MBC스포츠 플러스의 김민아 아나운서가 퇴사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SBS 스포츠 '베이스볼 S'의 진행자로 발탁된 데 이어 지난 2월 SBS 스포츠를 먼저 떠난 배지현 아나운서는 지난달 30일 오후 잠실에서 열린 LG 트윈스-두산 베어스 경기 중계에 앞서 MBC스포츠 플러스로의 이적 사실을 발표했다.

이날 배 아나운서는 "이렇게 새로운 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니 잠실구장에 있는 지금 감회가 새롭다"며 "올 시즌도 이렇게 야구와 야구 팬 여러분과 계속해서 호흡할 수 있게 돼 정말 행복하다. 이 행복감에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고 새 출발 각오를 밝혔다.

배 아나운서의 깜짝 등장은 MBC스포츠 플러스 내부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배지현 영입은 회도는 소문만 듣고만 알았는데 갑자기 중계 화면에 등장해서 놀랐다"며 아나운서 맞트레이드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배 아나운서는 오는 4일부터 김선신 아나운서와 함께 MBC 스포츠 플러스의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베이스볼 투나잇'을 진행할 예정이다.

SBS 스포츠의 새 안방마님이 된 김 아나운서는 스스로를 구원투수에 비유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프로야구 기자간담회'에서 김 아나운서는 "아줌마를 선택해 준 SBS 스포츠의 용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로의 친정을 떠나 각각 새로운 방송사에서 간판 프로그램 진행을 맡게 된 두 아나운서의 행보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지민 기자 sngkim@

이상민 '제2 전성기'

케이블 프로그램 잇단 출연

가수 이상민(사진)이 케이블 방송계의 새로운 제왕으로 군림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수십억 원대 대출 알선 등으로 TV에서 다시 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상민이 최근 여러 케이블 채널에 등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상민은 지난 2012년 엠넷 '음악의 신'을 시작으로 방송 복귀를 알렸다. 이후 XTM '더 벙커'와 tvN '더 지니어스1 게임의 법칙'에서 노련한 방송 감각을 선보였다. 이상민은 기세를 몰아 '더 지니어스2-룰 브레이커'에 출연했지만 과도한 우승 욕심을 드러내며 각종 논란에 휩싸이는 등 다시 하락세를 타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민은 '더 벙커'를 세 번째 시즌까지 무사히 이끌며 탁월한 진행 능력을 인정받아 엠넷 '유딩제섭'에 김구라·유세윤 등과 함께 공동 MC로 발탁됐다.

또 이상민은 3일 KBS W '여자는 수다 뭔'과 17일 올리브 채널의 '셰어하우스' 등에도 출연하며 케이블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민 기자

문화의 탈경계가 상생(相生)의 문화로

박상진의 트렌드읽기

최근 문화 예술계의 많은 이슈들 중 '탈경계(borderless)'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게 했으며 기존에는 없어 정의할 수 없었던 그 무엇들을 생성해내고 있다.

지난해 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펑크 전시 '펑크 카오스 투 쿠튀르(Punk Chaos to Couture)'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대표적인 하위 문화로 여겨졌던 '펑크' 문화의 공격적인 면을 의도적 일탈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쿠튀르적이고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이렇게 대중문화가 예술의 소재로 활용되는 일은 요즘에도 속속 일어나고 있다.

얼마 전 오귀스트 로댕의 역작 '지옥의 문'이 상설 전시되고 있는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는 미술과 예술이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독특한 전시가 시작됐다. 정연두 작가의 '무겁거나 혹은 가볍거나(Spectacle in Perspective)'라는 전시로, 로댕의 '지옥의 문'을 재연하고 상징화해 대중문화의 현상을 재해석했다.

이 전시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내면을 바라보는 무거운 성찰을 스타와 스타를 추종하는 팬의 관계를 통해 가볍게 바라보고자 했다. 작가는 국내 5인조 걸그룹인 크레용팝과 그들의 아저씨 팬을 조명해 현대 인간의 근원적 내면을 바라보고자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저씨 팬들의 점(點)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팝저씨'는 크레용팝의 아저씨 팬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다른 걸그룹의 팬클럽과 구분될 만큼 30~40대, 많게는 50대 아저씨 팬들로만 구성된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이번 전시를 계기로 팝저씨들이 크레용팝의 팬이 된 이유가 주목받았는데 분명 기존의 팬클럽의 그것과는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부분의 팝저씨들은 무명 시절 길거리 공연을 자처하며 열심히 사는 어린 멤버들의 모습에 빠져 팬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들이 대중적 스타가 돼서도 그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열혈 팬이 됐다고 한다. 어느 인터뷰에 따르면 팝저씨들은 크레용팝의 활동 모습에서 요즘 젊은이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됐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생각하게 됐으며 스스로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 www.lfe.co.kr 대표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2	7		
						4		
7			8		1		6	9
	9	3	7					6
8		7		5		3		4
5					9	8	7	
3	6		4		5			8
		5						
		9	2	1				

				2	5		8	
7	1					3		
2					1	5	7	
4		9	1					
	5		8		7		3	
					4	9		5
	9	2	3					6
		6					2	7
	4		6	1				

스도쿠 정답

문제제공 - 보누스
(연서 스도쿠 리미티드 (마이클 리오스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533-8877
www.saju4000.com

회사 다니는데 창업하면 될까 직장생활 계속하는게 좋을듯

문서드 남자 74년 음력 3월 2일 오전 6시

Q 현재 조그만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에 회의도 들고 적성에도 잘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고려 중입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들어 창업하는 것이 좋을는지요? 그리고 아직 결혼은 하지 못했는데 언제 인연을 만날지도 궁금합니다.

A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으면 아무래도 무엇을 하든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지요. 교육열이 높은 것은 공부를 잘해 한 사람이 신분 상승의 기회가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데 세상살이는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주 나름이지만 머리가 좋고 심성이 약하면 어떨까요. 머리가 좋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머리가 안 좋아도 성실하고 순박한 사람은 손해만 보고 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운세로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는 좋은 머리를 타고났기에 하찮은 흠을 하게 보이는데 지혜로운이 다소 미진합니다. 직장을 위한 노력을 해보시기 바라며 상담 재신청하십시오.

따돈났었는데 결혼 가능할까요 건강챙기면 내년엔 좋은 소식

문서드 남자 70년 8월 15일 오후 2시

Q 지금까지 여자를 제대로 사귀어보지 못했습니다.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이제는 이성을 만난다는 게 두려워지기까지 느껴집니다. 주변에서 소개팅, 선을 주선해줘도 한 번 만나고는 연락이 이어지질 않습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언젠가 여자를 만나 저도 남들처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A 전단이 메마른 형상으로 감정이 격해지면 뒤를 재지 않고 울분을 터뜨리다가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로 언제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니 서글픔을 자제해보십시오. 배우자운이 2015년부터 이어지니 자신의 계발에 힘쓰십시오. 생일자에 현침살 懸針殺(날카로운 기운을 나타내는 오행)은 혈인의 기운을 띠어 종교를 가까이하며 천의(天醫)이라 굉장 일학에 많이 분주하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신경을 씁니다. 이렇듯 종교 지향과 인연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다가 상식을 벗어난 종교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 쉬는 날 등산이나 주말 농장을 신청하여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4월 1일 (음 3월 7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 48년생 멀리 외출할 일 생긴다. 60년생 새가 둥지를 떠나 창공으로 나는 형국~ 72년생 인자한 상사 덕에 위기 모면한다. 84년생 명분이 없는 일엔 나서지 마라.

소 — 49년생 논란할 일은 일단 덮어둬라. 61년생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다. 73년생 기쁨이 끊이지 않아 밖에서도 휘파람이 절로~ 85년생 뜻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호랑이 — 50년생 술자리에서 익숙하면 후회한다. 62년생 예감은 적중하니 기대해보라. 74년생 언행이 너무 튀면 망신만 당한다. 86년생 심신은 피곤하지만 보람된 하루~

토끼 — 51년생 위로할 땐 화끈하게 하라. 63년생 뿌린 씨앗은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다. 75년생 돈이 되는 문서가 들어온다. 87년생 오락가락하는 연인 때문에 답답~

용 — 52년생 이기심은 대화 감아먹는다. 64년생 주변의 충고는 새겨서 들어라. 76년생 돈에 흔들리면 손해 본다. 88년생 긴박하게 진행해야 할 일이 생긴다.

뱀 — 53년생 남들이 뭐라든 나는 나로 살아라. 65년생 여유 부리다 되레 당한다. 77년생 축제전전은 예의 뿌리니 조심할 것. 89년생 술자리가 길면 말썽이 생긴다.

말 — 42년생 조언은 짧을수록 효과~ 54년생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발상은 버려라. 66년생 신상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 78년생 회식 동료와 대화 물꼬부터 터라.

양 — 43년생 과유하면 불이 빛는다. 55년생 소나기는 일단 피하는 게 상책~ 67년생 직장인은 조직의 주역으로 도약한다. 79년생 선의의 거짓말엔 기꺼이 속아줘라.

원숭이 — 44년생 인생은 기적의 연속임을 명심~ 56년생 돌아선 사람 잡아봐야 소용없다. 68년생 날날 볶는 배우자 때문에 휴~ 80년생 힘든 상황 속에 희망도 자란다.

닭 — 45년생 기다리면 소식 듣는다. 57년생 남의 떡이 커 보이니 곁눈질 마라. 69년생 귀인을 만나 주말의 노래 부른다. 81년생 예쁘는 악발 다르으니 실력 보여줘라.

개 — 46년생 변신은 거창하게 생각 마라. 58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0년생 주변의 충고에 귀 기울여라. 82년생 떡을 만들다 보면 떡고물이 묻기 마련이다.

돼지 — 47년생 지나가 기쁜 소식 전한다. 59년생 오지랖 진짜에 행복함이 살맛~ 71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이 편안하다. 83년생 꿈을 이루려면 조언을 구하라.

커브 진화 RYU '전국구 스타'로 떴다

美 개막전 7이닝 7K 무실점…구원투수 탓 2승 불발

코리언 몬스터 류현진(27·LA 다저스)이 구원투수 브라이언 윌슨의 난조로 시즌 2승 도전에 실패했지만 '전국구 스타'로 거듭났다.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위치한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2014 메이저리그 미국 본토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호투를 펼쳤다.

에이스 클레이턴 커쇼(26)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본토 개막전 중책을 맡은 류현진은 7이닝 3피안타 무실점 7탈삼진 3볼넷으로 호투했다. 특히 두 번의 더블플레이를 유도하는 등 주자를 내보낸 상황에서 위기 관리가 돋보였다.

류현진은 1회 1사 만루, 2회 2사 2·3루의 실점 위기를 맞았으나 특유의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이며 무실점 처리했다. 3회부터 연속 삼자 범퇴 쇼를 펼친 류현진은 7회 토미 메디카(26)에게 볼넷 1개를 내준 것을 제외하고는 단 1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류현진에 이어 구원 등판한 브라이언 윌슨(32)이 1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3실점했다. 류현진의 승리는 무산됐다.

이날 다저스와 본토 개막전 경기는 실질적인 북미 메이저리그 개막전 성격으로 미국 케이블 채널 ESPN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다. 류현진은 전 세계에 생중계됐던 22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호주 개막 시리즈에서도 5이닝 2피안타 무실점 쾌투를 펼친 데 이어 또다시 큰 경기에서 호투를 펼치며 세계시장에 존재감을 높였다.

ESPN 중계진은 16타자 연속 범타 처리와 함께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직구 등 4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뿌리며 삼진을 잡아낸 류현진을 자세히 조명했다. 특히 "타자 몸쪽과 바깥쪽에 원하는 대로 체인지업을 뿌린다"며 "폼살기 인 체인지업 구사 능력을 높게 평가했다.

류현진은 이날 경기까지 올 시즌 2경기에서 12이닝 5피안타 무실점 12삼진 3볼넷을 기록하며 올 시즌 활약에 기대감을 높였다.

/하희운기자 yswi@metroseoul.co.kr

LA 다저스의 류현진(왼쪽)이 3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경기에서 1회 1사 만루의 위기를 무실로 넘긴 뒤 포수 A.J. 엘리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AP 연합뉴스

'감독이 뽑은 복병' NC 방망이 터질까

오늘 KIA와 3연전

가장 마지막으로 개막전을 치르는 NC 다이노스가 2014시즌 프로야구 최대 복병의 위력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NC는 1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3연전에 돌입한다. 8개 팀이 한 차례 이상 개막 시리즈로 맞붙은 가운데 NC는 이날 올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개막을 앞두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김응용 한화 이글스 감독을 제외한 7개 구단 감독이 NC를 다크호스로 꼽았다. 1군 진입 2년째를 맞은 NC가 한층 단단하게 갖춘 전력을 첫 경기에서부터 보여줄지 야구계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3년 만에 등장한 외국인 타자를 비롯한 용병이 개막과 함께 승부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신생팀 혜택을 받는 NC는 외국인 선수 활용에 한결 유리한 위치에 있다. NC의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는 '3명 등록 2명 출장'인 다른 팀과 달리 '4명 등록 3명 출장'이다.

NC는 지난해 마운드를 지킨 찰리 쉬렉과 에릭 해커 외에 오른손 투수 태드 웨버와 장타자 에릭 테임즈를 영입했다. 또 김경문 NC 감독의 심복 이종욱과 손시헌을 두산 베어스에서 데려오며 이번 시즌 팀 전력 강화의 핵심이다.

김 감독은 "올해는 NC가 다크호스가 아닌가 하고 함의 말하고 싶다"며 "올해는 한국 프로야구에 바람 한번 일으켰으면 한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NC는 KIA와의 3연전 이후 4일부터 홈인 마산구장으로 옮겨 넥센 히어로즈를 상대한다. /송손호기자

강철 멘탈 류현진 에이스의 길 가다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LA 다저스 류현진의 2년차 발걸음이 가볍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호주 개막전에서는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해 승리를 따냈다. 지난 3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본토 개막전에서는 7이닝 3피안타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1-0으로 앞선 가운데 브라이언 윌슨이 흔들림을 허용했지만 류현진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한 경기였다.

두 경기를 살펴보면 '2년차 징크스'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보다 체중이 줄었지만 오히려 탄탄해진 몸을 보면 강해졌다는 인상을 풍긴다. 제구력은 여전히 정교하고 구위는 날카로워졌다. 직구는 의도적으로 높게 던지거나 몸쪽과 바깥쪽 구석을 이용하고 변화구의 높낮이를 이용해 타자들을 제압하고 있다.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모든 구종으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을 보였다. 위기에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더욱 강력한 투구를 한다. 만루에서 거의 득점타가 없는 대신 병살이 많다. 볼을 낮게 던져 병살을 뽑아내는 능력은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이다.

정신적으로도 강해진 인상을 준다. 호주와 샌디에이고 경기는 모두 원정이었다. 한국인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었겠지만 상대 팬들이 훨씬 많았다. 지난해 첫 경기는 긴장된 표정이 가득했으나 올해는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한 클레이턴 커쇼를 곁에서 보면서 깨닫고 배운 점도 있는 듯하다.

류현진은 이제 돈 매팅리 감독이 믿고 맡기는 투수다. 호주 개막전은 잭 그레인키, 본토 개막전은 커쇼를 대신해 완벽한 투구를 했다. 다음달 5일 다저스 타다음 홈 개막전 선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시 커쇼의 빈자리를 메우는 셈이 된다. 야구에서는 팀이 원할 때 제 몫을 하는 투수를 '에이스'라고 부른다. 류현진이 그 에이스의 길을 가고 있다. /OSEN 야구전문기자

'박승희 소속팀'도 성추행 논란

평창 기대주 박소연, 김진서 귀국

피겨 기대주 박소연(왼쪽)과 김진서가 지난 31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축하 받은 꽃다발으로 손을 흔들고 있다. 박소연과 김진서는 지난 29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린 201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 여자싱글과 남자싱글에서 각각 9위와 16위에 오르는 등 평창 동계올림픽 기대주임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화성시청 빙상 전 감독 피소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성추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국가대표인 경기도청 여자컬링팀 코치의 성추행 폭언 논란에 이어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 박승희가 속한 화성시청 빙상팀에서도 코칭스태프에 의한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31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승희를 제외한 화성시청 소속 선수 2명이 전 감독 A씨를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선수들은 고소장에서 "A감독이 지난해 훈련 도중 자세를 교정하거나 속력을 낼 것을 요구하며 뒤에서 엉덩이에 손을 대고 미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먹다 남은 얼음을 옷 속에 넣었고 재계약을 하고 싶으면 애교 좀 부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들은 이에 앞선 지난해 11월 같은 이유로 A감독에 대한 감사를 화성시에 요구했다.

화성시청 소속 선수들과 같은 링크에서 연습을 한 중학생(13) 에도 "A감독이 안에 손가락을 넣고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는 행동을 했다"며 선수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희운기자 yswi@

프로배구 전적 31일

GS칼텍스	2	3	IBK기업은행

프로야구 전적 31일

■사직

한화	100	100	000	2
롯데	000	006	41X	11

[illegible]

홍명보호 튀니지와 평가전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다음달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국내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튀니지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4위로 이번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최종예선에서 카메룬에 져 본선 문턱에서 탈락한 강팀이다. 본선에서 알제리를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이자 비슷한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는 튀니지를 상대로 필승 전략을 시험한다. 한국과 튀니지는 2002년 한 차례 만나 0-0으로 비긴 바 있다.

이번 경기는 월드컵 출정식 행사를 겸해 개최되며, 대표팀은 경기 이튿 후인 다음달 30일 전지훈련지인 미국으로 떠난다. /유순호기자